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297호 2019년 1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김원영

2019 기해년을 맞아 동문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뉴잉글랜드 지부 SNU 산우회 회원들, 2019 정월 초하루 하이킹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 3 계속)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 회장

새해 인사

우선 미주 동창회를 사랑하시어서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 동문 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하여주신 조화연 회칙 위원장(음대 64, 필라)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여주신 미주 동창회 본부의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으로 창립 28주년을 맞는 우리 미주 동창회는 동문들의 노령화와 젊은 신입 회원의 저조한 참여라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비를 내시는 동문들 1,000여 명의 83%가 50대(42%), 60대(41%) 학번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미주 동창회에 (재정) 위기가 온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를 준비하고자 2017년 6월 24일 평의원 회의에서 미주동창회 기금 즉 'SNU-AAUSA CENTURY FOUNDATION'을 설립했고, 2018년 6월 16일의 평의원 회의에서는 그를 운영하기 위한 회칙도 개정하여 확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인 3백만 불에 도달하면 이로부터 생기는 주식 배당이나 이자로 동창회 운영비의 반 정도가 생기므로 동창회 운영이 훨씬 수월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회장단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3백만 불 목표액은 머지않는 날에 달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895년 국립 법관 양성소 (전 부통령 함태영, 이준 열사: 초대 입학) 개관을 시작으로 1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대학 랭킹은 현재 36위로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2018년 11월호 미주 동창회보: 고향의 봄 기사 참조).

우리 미주 동창회에는 많은 동문들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시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훌륭한 아이디어와 리더쉽으로 미국, 세계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4일에 있었던 서울대 통합 개교 72주년 기념사(2018년 11월호 미주 동창회보 참조)에서 박찬욱 총장 대리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서울대의 혁신 교육" 이 앞으로 서울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침이면 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미주 동창회의 저력입니다.

2018년 10월 미주 동창회보 설문 조사에 보면 각 지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카고 지부의 골든 클럽은 매달 조찬을 하면서 세미나를 듣고 하루를 걷기 운동 등을 함께 하면서 친목을 다집니다. 뉴욕 골든 클럽도 자주 만나서 골프도 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원로 동문 초청 오찬 등으로 동창회를 평생 사랑하시고 후원하여 오신 정성을 감사해 드립니다. 2018년에 발족한 뉴잉글랜드 지부 산우회(회장 김정선: 문리 66)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매달 등산, 하이킹, 바닷가 걷기 등을 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동창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동문 간의 결속 유대는 물론 서로의 우정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머나먼 이국땅에서의 고독감을 위로하고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명분과 기회를 찾아서 나이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 없이 함께 만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16일의 평의원 회의에서 강신용 회장(남가주, 사대 73입)께서 제안한 젊은 동문들과 서울대 재학생들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을 더 구체화하여서 차세대 동문 발굴을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2019년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이 해에는 미주 동창회가 더 번영하고, 동문 님들의 가정에도 평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1일
제14대 미주 동창회 회장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새해 인사

신수정 (음대 59)

총동창회 회장

올해는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서울대학교는, 개교는 1946년에 했지만 동문들의 친교는 오랫동안 단과대학의 울타리에 머물렀습니다. 대학이 다르면 마치 학교마저 다른 듯이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함께 서울대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과대학별 친교는 친교대로 소중히 가꾸어 나가면서, 단과대학의 벽을 뛰어넘는 더 큰 집으로서 1969년에'서울대학교 총동창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단과대학 동창회의 회원인 동시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원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5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서울대인의 타고난 저력에 힘입어 총동창회는 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0만명에 미달하던 회원수가 40만명으로 네 배가 되었습니다. 최초 47명 대상으로 미약하게 시작한 동창회 장학사업이 1,400여 명에 36억원을 지원하는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모든 대학 동창회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1978년 최주호 회장님께서 건축비의 대부분을 쾌척하시어 마포에 동창회관을 건립하셨습니다. 2011년 임광수 회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면서 동문들의 성원을 모아 지하 6층, 지상 18층 장학빌딩으로 재건축하시어 장학사업의 기초자원이 튼튼해졌습니다. 서정화 회장님께서는 기부와 협찬 문화를 정착시켜, 매년 2억원 수준이던 관악회 기부금과 동창회 협찬금을 2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누적되어 장학금 30억원 시대를 열고,서울대학교답게 품격 있는 총동창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광수 고문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사업도 감사님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금년 내에 추진될 것입니다. 각각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관악회와 서정화 회장님의 약속 또한 차질 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학교와 총동창회가 체결한 협약서가 있고, 건축 진도에 따라 기부를 실행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교가 보다 큰 구상을 가지고 착공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정화 명예회장님도 공동 기부자인 관악회와 함께 기부의 실행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협약서에서 규정한 학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을 사실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고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총동창회도 50돌을 맞아서 앞으로 동문님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더 많은 후배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재능 있는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은 선배 된 사람들의 도리이고, 총동창회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대학교가 언제든 가장 앞장선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교가 미래에 어떤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문들이 화합하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대학과 대학원 등을 통하여 동문이 되신 다양한 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서울대총동창회는 편안한 둥지가 되고자 합니다. 어디서든 서울대학교라는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모든 동문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이런 모든 분들께 모교와 동문을, 그리고 동문과 동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홈커밍데이에는 3,500여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 3,000명 이상의 동문님들이 3억원을 협찬하시어 성대한 잔치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총동창회의 여러 활동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9년,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다가올 100년을 향한 첫 발을 떼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장선출 무효소송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리하고 수렴하여 다음번 정기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동문 여러분들의 총의를 여쭙겠습니다.

총동창회는 자랑스러운 반세기 역사에 걸맞게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더 품격 있는 행사를, 동문과 모교, 재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창립 50주년을 축제의 해로 기억되게 하겠습니다. 할 일은 많지만, 함께 해주실 동문 여러분이 계시어 항상 든든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

박찬욱 (사회 72)

총장 직무대리

서울대학교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대학교가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정으로 노력해주시고 또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작년 2018년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고, 선진민주국가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가 정치리더십의 불안정, 난민 문제와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질서에 대한 청산 요구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으로 K팝 전성기를 알리면서 경기 침체로 우울하던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러한 결실을 가능케 한 보직 교수와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저는 작년 하반기 총장 직무대리로서 서울대학교라는 거대 학문공동체의 운영 책임을 맡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문단위의 집단과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학교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지를 모으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어려울수록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내부에 상충하는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잠재된 에너지가 끓어 넘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접점을 찾아 그 에너지를 결집시킨다면 우리 학문공동체는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직무수행을 통해 우려보다는 더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 집행부가 구성원들의 합심협력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의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작년 한 해 동안도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건설을 위해 전진의 행군을 계속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세계 유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이래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유일의 30위권 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흥캠퍼스를 국가 전략사업을 선도하는 첨단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첫 삽을 떴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는 지난 7월 하순 이후 초유의 총장 궐위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만 혼란과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저는 과도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대학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총장 재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과도기 집행부는 대학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었던 본부 보직교수 거의 전원이 유임하면서 각자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 행정과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연대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국회의 예산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약 205억 정도의 국고출연금 증액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해 서울대학교에는 새 리더십의 시대가 열립니다. 신임 총장께서 정부의 임명절차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취임합니다. 새 집행부가 당면한 학내외 현실적 여건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에 법인화 8년차가 되지만 서울대학교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 정부의 각종 조세 부과와 재정 지원 축소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불비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새 집행부가 구성원들의 합심협력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의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작년 개교 72주년 기념사에서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하여 몇 가지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를 새해의 소망으로 다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대학의 혁신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이 서울대학교에 거는 무한한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고 더 나아가 우월주의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고수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우리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혁신 없이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이 창조적 파괴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고 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혁신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대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한반도 평화의 정착, 그리고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현되고, 남북한이 다시 민족통합을 이루어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대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북한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남북한 간 신뢰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총장님과 구성원 모두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 서울대학교의 당면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지성의 전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고, 균형적인 사고, 합리적인 대화와 민주적인 토론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성의 기본 바탕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며 성찰 없는 지성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지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힘겨운 내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지혜와 자기성찰을 밑바탕으로 새 집행부의 취임은 서울대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서울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

신응남 (농대 70)

차기 회장

자랑스런 동문 여러분,

2018년 한해에 한반도는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그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문자 문명의 역사 오천여년을 돌아 볼 때, 역사의 흐름은 반복하며 발전해간다는 헤겔의 학설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합니다. 역사 속에 문명을 먼저 이룩한 국가들은, 그 지역에서 패권을 갖고 문명을 선도해 왔습니다. 모국 대한민국의 운명도, 패권을 잡고 있는 국가로 부터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음을 절실하게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은 돌이킬수 없으며, 미래의 시간인 내일은 아직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2019년 己亥年 새해에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지난 한 해는 통일을 향한 이상과 비현실적인 희망의 에드벌룬을 너무 높게 띄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모국이 격변하는 현실 흐름을 잘 짚어가며, 미래지향적인 역사 인식의 안목을 갖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가도록 진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으며, 올 한해, 동창회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모여야 할까요.

널리 회자되는 김춘수 시인의 '꽃'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당신이 내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읊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빛나는 색깔과, 따뜻한 향기를 마음껏 부르려 합니다.

지금껏 동창회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몸짓으로 있던 여러분은 그 불려진 이름으로, 동창회에 커다란 의미로, 따뜻한 눈 빛으로 오십시요.

그리하여,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한때 가슴 아프게 사랑했던 모교에 큰 의미로 다가 오십시요.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여럿 있을 듯합니다. 그리하여_ 뒤에 올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질 때 우리는 커다란 의미가 되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제28차 평의원 회의가 세계의 경제 문화의 도시 뉴욕에서 6월 21~23일 개최됩니다. 이번엔 특별 행사로, 음악인들의 로망, 카네기홀에서 6월 22일 저녁에 축하 공연을 갖습니다. 모교의 총장, 한국의 총동창회 회장 및 임원들, 해외 12개국의 해외 동창회 임원을 함께 초청하여, 전 세계의 동창회가 함께 모이는 축제의 한 마당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울대인의 저력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본인 임기 시작을 앞두고, 다시 한번 미주 동창회를 위한 각오를 다져봅니다. 새해에는 각 지역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동문회간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이 땅에 우리의 푸른 꿈을 확장하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2019년에도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차기 15대 미주 동창회장

동문 문단

곽상희 (문리 52)

원로 동문

<신년시>

'영원한 진리는 우리와 함께

동숭동 거리
관악산 황량한 밭 일구어
진리를 캐던 우리
고뇌와 꿈의 별을 안고
지식의 골목길 헤맬 때
우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어둠과 절망사이에도 한 줄기 빛
아름다운 희망이 등불 비춰주던
진리의 광활한 대해
가슴으로 지식과 진리도 찾아왔다

작은 돌다리 꿈꾸며
서둘러 교문을 들어서면
활짝 문을 연 본관 앞
5월이면 팔다리 넘실대던 라이락 향기
끝없이 흐르던 꿈의 강물,
지식에의 목마름을 채워주던
드넓은 도서관

그러나 우리가 탐한 것은
진리가 함께하는 우정이었다
정의와 자유 그리고 자아와 자존감,
지금은 이국의 거리,
미완의 꿈을 안은 아직도 파릇한 대지
쉬지않고 가슴으로 쓰던
흰 페이지는 누렇게 멍이 든 채

엎드려 역사는 기록되고
관악산 동숭동 숲은
독수리비상을 하려하네

아직 답습하지 않은 먼 언어
저기 손짓하여 부르는
진실과 진리의 숲이 짓푸르다 ....

(기해년 새아침 기억의 오솔길을
걸으며)

뉴잉글랜드 SNU 산우회 회원 **2019 정월 초하루 하이킹**

산우회 회장, 김정선 (문리 66)

뉴잉글랜드 지부 SNU 산우회 회원들이 2019년 정월 초하루 산행을 다녀왔다. 보스턴 Blue Hills Houghton's Pond 캠프화이어 옆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주 정부에서 주최하는 First Day Hike에 참여했다. 겨울답지 않은 따듯한 날씨에 많은 사람이 몰려나와 아주 혼잡하였으나 새해 첫날 자연을 즐기려는 수백 명의 인파로 활기가 넘쳤다.

정월 초하루 First Day Hike는 바로 여기 Massachusetts에서 처음 시작, 지금은 미국 50개 주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고, 이곳은 벌써 28회가 된다. Massachusetts 지역에도 11곳에서 열리는데 우리는 예년과 같이 역사가 제일 오래된 Blue Hills Houghton's Pond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작년엔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에 대표 두 사람만 참여했는데 금년에 거의 20여 명이 같이 산행을 했다.

주최 측은 세 코스로 나누어 하이킹을 인도했다.
Yellow trek : Houghtone's Family Hike,
Green trek: Winter Wonders Walk,
Red trek: Buck Hill Trek

행사에 참여하신 뉴잉글랜드 동창회 윤은상 회장님이 보내오신 메시지를 전한다. "정월 초하루에 미국 50개주 전역의 도시와 타운 근교에서 거행되는 First Day Hike! 보스턴 가까이에 있는 Blue Hills 산자락에 수백 명의 인근 주민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산행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뉴잉글랜드 지구의 '산우회' 동문들이 높고 낮은 능선을 오르고 내리며 함께 모은 새해 첫날의 맑은 기운을 모든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주 한인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젊은 개화파 한인들이 보빙 사절단으로 미국을 첫 방문 했을 때, 이곳 Blue Hills 산아래의 농사 시험장을 견학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의 새해 첫날 Hike 길이 회상 속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12시 후에 도착한 이들은 파킹랏을 찾느라 헤매야 했고 화장실도 아주 모자라고, 예년에 주던 Hot Soup도 없고... 여러가지로 예년에 비해 주최 측의 준비 부족해 보이는 First Day Hike였다.

내년엔 좀 일찍 모여야 할 것 같다.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2019년 새해
큰 소망과 작은 소망

개해의 무술년이 가고 돼지해 기해년이 찾아왔다. 또 올해는 '황금 돼지'해라니 좀 더 희망적인 해로 기대할 수 있을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2019년 1월 1일을 평화의 날로 정해 놓았으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칭하는 인간들이 전쟁, 폭력, 테러리즘의 위협을 좀 감소시키기를 소망한다. 2019년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시리아, 예멘, 우크라이나, 한국 등에서 전운이 계속 돌 것 같고 세계의 지도국인 미국에서도 여전히 총기 난사와 폭력 시위, 인종차별주의, 반이민 정책 등의 증오에 찬 정서들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새해의 큰 소망으로는 우리가 이민 온 미국과 고향인 한국에서 비극적인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국내정치에서는 정치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게 증오심이 없는 화합된 사회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이런 이상주의적 평화와 사회를 달성하려면 우선, 정치, 사회, 경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평화와 화합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양국 지도자인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의 분열된 국민들을 화합시켜야 한다.

불행하게도 이 두 지도자는 반대로 자기들의 정치세력을 확보, 확대하기 위하여 선동정치, 종족적(Ethnic), 지역적인 포퓰리즘(Populism)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한다고 하나 사실 두 지도자는 참다운 보수와 진보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앞세우고, 적자예산(Deficit Budget)에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책임한 예산정책으로 벌써 $1trillion 이상의 재정 적자로 미국의 부채를 늘렸으며, 관세 인상 정책으로 자유경쟁, 국제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또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수파들의 신념을 무분별한 여자 관계와 거짓말들로 무너뜨리고 있다. 벌써 1월 1일로 11일째 정부가 그의 무모한 국경 장벽의 예산을 국회가 통과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Shut down 하여 8십만 명의 공무원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진보, 애국파라고 자처하나 민생경제를 파탄하는 비 진보적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와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두 지도자는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나 사실 트럼프는 40% 정도의 유권자 지지와 문재인은 50% 정도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인기 영합주의의 상투적 수단인 신문, 방송, 인터넷, 트윗, 유튜브, 개인 방송들을 총동원해 자기의 의견과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 조롱의 메시지를 쏟아내어 사회를 분열시켜 민주주의의 근본 목적인 자유, 평등, 우애 정신을 말살시킨다.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보며 자기주장만 옳고 다른 견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비자유 민주주의적 정치 영향을 미국의 정치학자이며, 현재 CNN 시사 해설가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가 1997년 'Foreign Affairs' 학술잡지에 '비자유주의자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고 명명하였다. 이런 정책을 쓰는 지도자로는 폴란드의 카친스키 (Lech Kaczyński),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이집트의 팟타흐 시시(Abdul Fattah al-Sisi), 필리핀의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일보 유근일 언

론인이 언급한 바처럼 이런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거의 선거를 통해 집권했으나 실권을 잡자마자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을 자기편으로 메웠으며 이어서 공영방송 장악, 비판언론 추방, 종족적 민주주의에 따른 역사교육, 정치 반대자 투옥, 삼권분립 무시, 소수 야당 탄압으로 치닫는다.

트럼프는 본인 만이 옳고 반대 여론은 전부 거짓말이며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반대세력을 적대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했다. 트럼프도 반대 후보자였던 힐러리를 감옥에 보낸다고 으르렁거리고, 지금도 법무부에서 이메일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자주 언급한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많은 나라가 후진적 정치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4,600건 이상의 거짓 말을 하였으며 70년간 동맹국인 영국 총리 메이, 프랑스의 마크롱, 캐나다의 트뤼도 수상을 여러 차례 비하하고 비난하였다. 반면 미국을 비난하고 도전적인 독재자 푸틴, 시진핑, 김정은, 두테르테 등에게는 비난보다 칭찬을 더 많이 했다. 트럼프에 의하면 푸틴의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해킹을 안 했으며, 김정은은 훌륭한 젊은 영특한 지도자이며 그와는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다. 이런 궤변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데도 사실을 직시 못 하는 유권자들은 빈부격차, 취업난 문제, 세금 감세 등 유언비어를 잘 이용하는 대통령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를 적극 지지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반대파의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한 것이며 자유주의 엘리트 (즉 국제화파, 난민동정파, 과학지지파, 이상기온 통제파 등)의 리더십이 초래한 것이라는데, 이런 정치 선동은 당분간 경제 곤란 층과 빈곤 지역에서 유효할 것이다. 교육을 받은 어떤 계층에서는 그의 선동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세금 인하 정책과 본인들 세력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당분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이유 이외에 미국, 한국의 지도자는 그들의 정치 구호를 애국주의 (Patriotism, Nationalism)의 구호(Slogan) 아래 국민들을 선동한다.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 밑에 기존하는 군사, 경제 동맹으로부터 탈퇴를 주장한다. 지난 12월 26일 이라크 방문 시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 우리는 호구(Sucker)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맹국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비용 부담을 나눠 하는데,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상대는 유럽과 한국이다. 상황에 따라 주한 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018년 초 갑자기 누구와 상의도 없이 시리아에서 미군은 이미 군사적 승리를 했다며 미군 2,000명을 철수시켰다. 이것도 그의 4,600여 거짓말 중 하나다. 그는 한국주둔 미군 철수도 하나의 Business Deal로 생각할 것이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 안 하면 12억 불 정도의 돈을 미국 경제 번영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동 방위는 일본과 협조하고, 중국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친구 푸틴과의 협력으로 될 수 있다는 간단하고 위험한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정책을 막을 만한 사람은 측근 중 아무도 없다. 4성 장군 출신 국방부장관 메티스도 사직하였고, 외교 군사 전략을 좀 안다는 비서실장 켈리(Kelly)도 올해 초 백악관을 떠난다. 자아도취형 인물(Narcissist)인 트럼프는 본인이 모든 군사전문가, 장군들보다 더 명석하고, 영리하며, 일생 본인 의견이 모두 옳았고, 어떤 결정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와 비슷하게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진(?) 트럼프를 설복시켜 북핵의 존재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여 미국을 철수시켜 동맹을 파기하고 미북 간 관계를 개선해 남북공존으로 연합제를 채택하여 '한국, 조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면 7천만 한민족이 평화스럽게 잘 살 것이라는 구상인 것 같아 무척 우려스럽다. 이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북한과 철도 개통'하고 '북한에 돈 보내겠다', '김정은 대표는 한반도의 자긍심을 키워주었다' 등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말과 '우리 땅에서 전쟁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등,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미군 주둔비와 무기값을 더 내라고 야단법석인데 이런 발언을 하니 문 대통령은 점점 21세기의 돈키호테로 역사에 남을 듯하다. 과거 2년 동안 트럼프와 문 대통령의 집정 영향은 자국들에 불안과 공포를 가져왔고, 그들의 발언은 동아시아에서 평화보다는 전쟁위기에 더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2019년 나의 큰 소망은 두 지도자가 인기영합주의의 선동정치에서 벗어나 진실한 정책을 택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앞에 서술한 여건하에 나의 큰 소망은 잘 이뤄질 것같지 않으니 미국과 한국의 정치, 평화, 안보보다는 좀 작은 평화를 이번 기해년에는 소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할 것 같다. 즉 나 자신의 평화와 가족 그리고 크게는 우리 서울대 동문 공동체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우선 자기의 평화를 찾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내심과 존경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급한 성질은 심정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내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인 행복을 위하여 올해에는 좀 더 몸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위해 극단주의를 피해야 한다. 정치적,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 주장 만이 옳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과는 멀리 할수록 나에게 평화가 깃들 것 같다. 또한 나도 독선적인, 극단주의자가 안되기 위해 내 말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며 특히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한다. 가족 구성원이 가까워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족에 더 평화가 오면 나 또한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이 될 것 같다.

새해만 되면 동서양의 현인들이 충고하듯 " 인생의 길은 중용을 택하는 것" 즉 남은 시간 욕심없이 살려고 노력해야겠다. 너무 잘 살려고, 너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면 시기심이 생기고 이 시기심이야말로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며, 평화의 파괴물이다.

2019년에는 사랑, 건강,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으십시오. 제 글을 읽어주신 동문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곽승용 (의대 65)

상처받은 치료자
(Wounded Healer)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이 편리해진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멀어지고 있다. 의사 (치료자, Healer)와 환자 사이도 멀어지고 있어 컴퓨터와 건강 보험 회사가 가로막고 있다. 필자가 환자를 진료하던 옛날(?)을 회상하면 20대부터 온 환자는 50대가 되도록 오고 (아니 은퇴하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도?), 은퇴한 환자는 멀리 플로리다, 조지아 등에서 찾아오곤 하는데, 한 환자에 딸려 집안 식구 친척 친구에 이르기까지 다 오는 경우도 많았다. 명절 때에는 카드와 잔잔한 선물로 정을 나눴다.

이런 끈끈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이제 옛날얘기가 되었다. 예로부터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 중요성은 잘 알려져 왔다. 지금 생각하면 굿 등 원시종교의 치료의식이 무슨 효험이 있겠냐마는 많은 경우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일체로 마음의 안정과 의식에 대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결과일 것이다. 현재도 내과의를 찾는 환자의 60% 이상이 마음의 질환이라는 통계에서 마음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현 의학의 큰 위기에 "상처받은 치료자 (Wounded Healer)"의 개념과 실제의 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연말에 한국에서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사건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조울증 환자에게 살해되었다. 임 교수는 자신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경험해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헌신적 활동을 해, 그의 자살방지 매뉴얼이 전국에 사용되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저서도 남겼다. 12월 31일 5시 30분까지 진료실에서 마지막 환자를 보다 변을 당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승화해 자살 예방에 목숨을 바친 Wounded Healer의 좋은 예일 것이다.

희랍신화에 醫神인 Asclepius는 Apollo 신과 Koronis여신 사이에서 잉태되었으나 여신의 불륜으로 화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Apollo가 Koronis의 자궁에서 빼내 Wounded Healer인 Chiron에게 맡겼는데 Chiron 자신은 Hercules에게 독화살을 맞은 부상자였다. Chiron은 Asclepius에게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빛과 회복을 찾을 수 있는 치료술을 전수해 Asclepius는 여러 사람을 치료해 그의 의술의 능력이 Zeus 神의 시기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聖經에도 이사야서 53장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고 치료자인 구세주의 출현을 예언했음은 예수 자신이 상처받은 치료자 (Wounded Healer)임을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질병과 상처에 면역이 되어 병이 걸리지 않는 강한 인간으로 환자와는 딴 세상 사람인 것처럼 믿기 쉬우나, 위의 희랍신화와 성경에서 보듯이 치료자도 상처를 받은 약한 인간으로 치유가 필요한 존재다. 의사가 자신이 받은 상처에 깊은 이해와 아픔을 환자와 공감 공유하는 능력을 갖출 때는 가시고기처럼 자기의 성한 살점과 뼈를 깎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이 잘 될 것은 당연하다. 상담학에서는 건강한 치료자의 에너지를 환자에 수혈한다는 표현도 있다. 환자도 자신의 내부에 스스로 치유의 능력이 있어 서로가 partnership으로 치료에 참여할 때 치료자의 치유도 돕게 되고 치료가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환자도 자신도 치료자를 돕는다고 느낄때 환자는 낫기를 원하게 되고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신프로이드 학파의 Harry Stack Sullivan은 자신이 경험한 정신분열증 유사한 정신질환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해, 남이 이해 못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진정한 Wounded Healer의 표상을 동료, 후배, 환자들에게 보여줘 훌륭한 의사로 존경을 받았다. 환자와 의사가 인간적 이해와 상호존중, 공감을 실천했다.

뉴욕 Riverside Church의 Harry Emerson Fosdick 목사는 자신의 유니온 신학대학 시절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수개월 입원한 경험에서 그의 온 생애를 약자, 정신질환자들의 친구와 상담자로 헌신했다. 그의 Wound 없이는 그의 이런 헌신과 치료 능력은 없었을 것이다.

감리교 창시자 Wesley는 5살 때 그의 집에 불이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2층 창가에서 어쩔줄 모를 때 두 사람 이웃의 도움 (한사람 어깨위에 올라탄 또 다른 이웃이 2층 창문에서 잡아챔) 으로 살아나 그때의 상처와 은혜를 일생 거울삼아 런던의 빈민가에서 식민지 미국 조지아 마을까지 수천 명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며 치유했다. 그의 얘긴 희랍신화의 Asclepius를 연상케 한다.

이와같이 치료자(의사, 성직자, 심리상담자등)가 받은 상처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되는 환자와의 관계가 이뤄지려면 현대의 멀어진 관계는 치료자와 의료정책관들은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생명의 고귀함이 무엇보다 중할진데 우리는 의과대학에서 진정한 치료자를 배출을 위한 교육과 치료자와 환자의 거리는 현대의 발달한 과학과 비용의 효율화를 이

송윤정 (인문 89)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고유성

12월 첫 주에 서울에서 인공지능 서밋 AI SUMMIT이 있었다. 신용산에 새로 들어선 서울드래곤시티 내 컨벤션센터에 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런 규모로는 한국에선 최초의 인공지능 행사라 했다. 나는 둘째 날 발표자로 초빙되었지만, 첫날 오프닝 강연부터 참석자 중에 끼어 나도 열심히 경청했다. 나사 미국항공우주국 AI 박사의 강연으로 시작해 구글 수석과학자, 매켄지 컨설팅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 등등의 강연자들이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발표했다. 나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AI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 방문 중에 정말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났는데, 내 동기 중 한 명이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써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며 읽어보라 했다. 김재인이 쓴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였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찾아보았다. 요점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새로운 작동 규칙을 스스로 생성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만 인공지능의 목표는 인간이 정해주니,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시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 즉 창조적인 일은 인간에게 남는다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명료하지 않다. 알파고가 2016년 3월 세계 바둑계 최강자인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인간이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 이겼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1년이 조금 지난 2017년 5월 알파고는 '68승 이세돌에게 진 1패'라는 전적을 남기고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 세계적 투자 전문회사인 골드만 삭스의 경우, 20년 전 주식 전문 투자부서에 500명이 넘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 세 명 밖에 없고 올 11월엔 런던오피스에 인공지능으로 거래를 자동화한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거래를 자동화하고 인간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확률과 수학적 논리가 적용되는 바둑이나 금융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예술 같은 창조적 일은 인간만의 몫이라 해왔다. 지난 10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화 사십만 불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인공지능이 신문 기사도 쓰고, 심지어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한다. 그래도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은 과거의 데이터로 컴퓨터를 훈련시켜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본래의 예술가와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진정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은 인간만의 몫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딥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위대한 작품을 다 섭렵한 후 새로운 조합과 인간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에 더하여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한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훈련받아 그 특정 분야에 적용된다. 서로 다른 분야를 연계해 생각하는 능력 혹은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성이다.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말에 다가가고 있다. 지난 한 해의 목표 달성을 돌아보고 새해의 목표를 설계하며 많은 이들과 모여 사람들과 모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삶의 기쁨을 한껏 누릴 때다. 인간의 고유성이 어두운 겨울밤 반짝이는 별처럼 빛을 발할 때이다.

동창회보 300호 발행 기념 기획

동창회보 창간호를 찾습니다.

회보 편집부는 동창회보 300호(2019년 4월호) 발행을 기념하여
동창회보 창간에 참여한 동문과 회보 창간호를 가지고 계신 동문을 찾습니다.
참여 동문이나 이 분을 알고 계신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3월 15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news@snuaa.org

양해야 할 것이다. 유명한 Carl Yung은 "Only wounded doctor can heal whether that doctor be physician or priest."이라고 설파했다.

[필자주; APA Press 발행 'Psychiatry and Religion' chapter3 by James Knight, MD]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남가주 공대 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모임

150여 동문 참석, 성황리에 개최
1부 기념행사, 2부 특별강연, 3부의 소음악회 및 여흥, 경품 추첨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12월 14일 남가주 공대동창회 (회장, 한효동 58)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Intercontinental LA Downtown Hotel에서 150명의 동문, 가족, 내빈이 모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공대 동창회는 1968년 11월 2일 창립되었고, 33번째의 회장단이 봉사해오고 있다.

50 주년 축하 케이크 커팅은 한효동 회장, 조정시 부회장, 김남숙 여사

전체 3부로 구성된 기념모임은 총무 위종민 (64) 동문의 사회로 네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 기념행사, 2부 특별강연, 3부의 소음악회 및 여흥, 경품 추첨으로 열띤 분위기속 거행되었다.

한효동 회장의 개회사

1부는 한효동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치원 (69) 동문의 리드로 공대학가 제창, 타계한 동문들에 대한 추모 묵념, 회장 인사, 참석자 소개와 공대 이부섭 총동창회장 (총무 위종민 대독), 공대 차국헌 학장 (조정시 <60> 부회장 대독), 남가주 총동창회장 강신용 (사대 73) (한귀희 <미대 68> 부회장 대독) 축사가 있었고, 최용완 (57) 동문의 '서울공대 동창회 50년사 축시'와 김문희 (Mrs. 김병연 <68>) 시인의 '만선의 깃발을 올려라' 축시 낭독이 있었다.

축시는 뜻 깊은 50주년을 맞는 남가주 동문들의 노력과 성취에 경의를 표하고, 산업 불모지의 조국을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한 원동력의 일조를 담당한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출중한 아이디어 창출과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리더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서울공대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한효동 회장으로 부터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준 김남숙 여사 (Mrs. 고 김영기 <52> 전임회장)에게 감사패와 동문들의 친목 도모를 돈독하게 해 준 김철한 (57) 동문에게 공로패 증정이있었다. 50주년 축하 케이크 커팅은 한효동 회장, 조정시 부회장, 김남숙 여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해영 (56) 동문의 사진 촬영, 중식 만찬을 한뒤 2부 특별 강연이 있었다. 홍용식 (51) 동문의 자제로 로봇학의 세계적인 석학 Dennis Hong 교수의 로봇 기술에 있어서의 인문학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숙 여사 (Mrs. 고 김영기 <52> 전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박예란 (13), 최유나 (11) 동문의 축하 연주

3부에서는 홍선례 (음대 70) 동문의 진행으로 음대 동문들의 축하 연주회가 열렸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예란 (13)의 사라시테의 '집시의 노래', 첼리스트 최유나 (11)의 차이코프스키의 '야상곡'과 포퍼의 '요정들의 춤', 피아니스트 제갈소망 (02)의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가 연주되었다. 이어서 세 동문이 트리오로 연주한 영화 '여인의 향기'로 알려진 피아졸라의 '탱고'로 흥겨운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흥을 이어 초청 여흥사회자 최민

의 리드로 동문들의 가라오케 노래자랑, 댄스등의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순서로 푸짐한 경품추첨이 있었는데 특상인 한국왕복 항공권은 조무상 (법대 70), 그리고 1등상은 남궁진 (Mrs. 위종민 64)이 로봇청소기를 타는 행운을 안았다.

서울공대 동창회 50년사 축시 최용완 (공대 57)

태평양 건너편 기회의 땅에 발을 딛고
'빨리빨리' 열정과 재치있는 '끼'
눈빛 다른 이방인들 어려운 유학 중에
1968년 11월 2일 막내 한효동과 동문 선배들
한바탕 뜻을 모아 공대 동창회를 처음 엮고 기웠소

언어장벽 차별사회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
세종대왕 한글에 영어문자 섞어가며
지구를 맴도는 컴퓨터시간과 슬기로운 싸움
태극기 오르고 애국가 울리면 감동의 눈물 흘리며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던 형제들이여

고인돌 세워서 세계로 퍼져나간 선조의 발길
석탄불에 쇠붙이 녹여 금속문화 시작한 조상의 지혜
겨레의 핏줄 끓어오르는 뛰어난 인재들
과학 첨단 앞서 가는 공학도의 천명을 이어
씩씩하게 자라난 오뉘들 50년의 세월 오늘에 이르렀소

오! 강물 이루어 흘러가는 우리의 운명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서울대의 인연
그대 옆에 있어 따듯하고 보람 있는 삶으로
몸부림치는 세계정세 평화의 길을 내어
관악의 횃불 올려 내일을 밝혀가는 동문들이여

워싱턴 DC 동창회 2018 연말 잔치, 성황리에 개최

장학금 수여식

2부 오락시간 사회자 류영준(공대 02) 동문과 손민지(대학원 16) 동문

130여 동문 부부 참석, 49학번부터 2014학번이 함께 어우러져 젊어진 동문 잔치

【기사: 한정민 (농대 87)】
서울대학교 워싱턴 지역 동창회 (회장 정평희)는 지난 12월 16일 (일) 저녁 버지니아 Falls Church에 위치한 웨스틴 타이슨스 코너 호텔에서 동문과 가족들을 포함하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말 잔치를 열었다. 1부 총회에서는 새로 선임된 박상근 부회장 (법 75)과 이우진/백태욱 감사, 그리고 미주 총동창회에서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8명의 평의원 인준을 하였다. 함은선 (음 77) 장학위원장이 9명의 샤로수 (2000년대 학번)동문들과 동문자녀에게 $9,000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올해 장학금을 기부한 남욱현, 박용걸, 백순, 변만식, 안선미, 정원자, 정평희, 한의생, 함은선 동문들에게 감사의 선물이 증정되었다. 총회 후 단체사진 촬영과 만찬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자주 못 만났던 반가운 동기들과 선후배들과의 즐거운 담소가 이어졌다. 류영준 (공 2002) 동문과 손민지 (환경계획 대학원 2016)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오락 시간은 선후배 이름으로 Name Bingo를 하면서 처음 만난 동문들이 인사를 나누는 따뜻함이 오고 간 친교시간이었다. 올해에는 참석자의 40%가 80년대 이후 학번의 동문들과 가족들로 채워지면서 한층 젊어진 동문회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순서가 샤로수(2000학번 이상)와 아크로폴리스 (80-90년대 학번) 회원들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게임과 퀴즈, 래플 등을 통해 풍성한 선물과 상품들을 나눠주었다. 최고령 49학번 (89세) 부터 2014학번 (22세)까지 모든 선후배가 함께 무대에 나와서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기차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웃음이 만찬장을 가득 채운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파티였다.

내년에도 샤로수와 아크로 폴리스의 모임과 동문 내의 동호회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와이 동창회 총회겸 송년회 개최

송년회에 참가한 동문 및 가족 일동

【기사: 성낙길 (문리 77) 회장】
지난 12월 15일 토요일. 최태식 동문께서 주선하여 주신 Waiea Ward Village 파티룸에서 31명의 회원이 모여 2018년도 총회겸 송년회를 거행하였습니다. 회장 인사과 건배로 시작한 송년회에는, 예년에 비해, 새로 참석하신 동문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식사 후, 돌아가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들을 나누었고, 이어서 진주현 (99 학번) 동문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진 박사는 Forensic Anthropologist 로서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DPAA) 에서 근무하며, 한국 전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강연은 올해 (2018년) 여름, 본인이 직접 북한 원산으로 가서 유해 52구를 하와이로 이송하고 실험실에서 신원 파악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약 30분 간 진행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 하여 동문 여러분의 건강을 빌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주현 (99 학번) 동문의 강연

당시 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oakorea.com/a/4517861.html

워싱턴 DC 동창회 망년 번개 모임

【기사: 이주희 (음대 89)】
토요일인 12월 29일 오후 5시, 남욱현 (경영 '84) 동문의 집 앞은 많은 동문들의 차들로 북적거렸다. 메릴랜드 주 샌디스프링에 사는 남 동문의 집까지,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 동문들이 삼삼오오 카풀을 해서 모였을 때는, 이미 동문들 마음에는 저물어가는 2018년을 다른 동문들과 함께 멋지게 기억하고자 하는 기대로 가득차 있었다. 한편, 그저 작은 번개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왔다가 그 규모에 깜짝 놀란 동문들도 적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훌륭한 저녁을 마치고, 곧 박문수 동문이, 본인이 직접 재배한 재료들로 숙성이 필요 없는 친환경 고추장을 만드는 시범을 보였다. 왠지 여자 동문들만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 여성동문들이 이것 저것 질문을 하며 흥미롭게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아크로폴리스 남성 동문들이 박 동문과 같이 부엌 바닥에 앉아, 모든 재료들을 섞고 젓는 일을 하며 즐거움과 맛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고추장의 열기가 식을 새도 없이 바로 윷놀이 한 판. 강형석 (기계공학 '86) 동문이 지난 30년간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윷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 무언가 더욱 전통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동문들간의 경쟁심에 불붙게 한 "Back 걸" 방식 출현, '역시 서울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동문들간의 친한 (?) 언쟁은 끊이지 않았다.

친환경 고추장을 만드는 시범

곧 이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 세례들. 남동문 부부가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해 놓은 다양한 선물을 받고, 오인환 전회장님 (천문 '63)과 정평희 회장님 (토목 '71)의 격려 말씀을 끝으로 이 번개의 막이 내리는 듯 했으나, 동문들이 떠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담소를 나누며 같은 장소에서 2차와 3차를 하는 신기한 번개를 경험하게 됐다. '2018년 망년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한해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진부한 멘트로는 그 날의 흥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 다는 것이 아쉽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강성호 신임 회장 새임원 소개

음악회

장학금 수여식

북텍사스 지부 동창회 2018 송년회 개최

음악회, 장학금 수여식과 총회, 신임 회장 81학번 강성호 동문 취임

【기사: 김지성 (경영 88)】
북텍사스 서울대 동창회(회장 이석호)가 지난 12월 8일(토) 코요테 리지 골프 클럽 연회장에서 2018년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송년회에는 음악회와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오후 5시에 리셉션을 시작으로 6시부터는 음악회가 있었고 이어 장학금 수여식과 총회가 있었다.

음악회에는 현재 TCU(Texas Christian University)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수학중인 음대 성악과 03학번 이제욱 동문이 양경아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조두남 작곡의 새타령과 베르디(G Verdi)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불렀다. 그리고 특별초빙 첼리스트 심지연 교수와 피아니스트 양경아(음대 '83 피아노 전공) 동문이 협주로 파가니니(N Paganini)의 '로시니 오페라 변주곡'과 멘델스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총 6명의 장학생에게 이선애 장학후원 회장과 이석호 동창회장이 서울대 동창회가 마련한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생에는 홍희재, 권준, 조조슈아, 조수빈, 박보현, 이제욱 학생이 포함됐다. 갈랜드 고등학교 재학시절 장학금을 받고 UT 오스틴을 졸업한 한수연 씨도 특별히 참석해 장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만찬 후에 김영훈 총무의 사회로 총회가 이어졌고 유황 동문의 격려사, 테이블별 동문 소개, 행사보고와 재정보고가 있었다.

동문과 가족 친지들 60명 가까이 참여한 이날 동창회에는 북텍사스 동창회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이석호 회장이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신임 회장으로 81학번 강성호 동문이 취임했다.

이석호 회장은 "선배들이 잘 닦아 놓은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내가 특별히 잘 한 것은 없고 2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함께 미력하나마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신임 강성호 회장은 "내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 동창회에 나오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며 "열심히 나오니까 동창회장도 하라고 해 주신 것 같다. 가문의 영광이다"고 인사해서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현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회장의 앞날을 축복하는 박수를 보내고 단체사진을 마지막으로 송년회를 끝냈다.

하트랜드 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

17명의 회원이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다짐

【기사: 이주현 (미대 92) 총무】
12월 15일 바쁜 토요일 오후, 맛있는 음식들을 한 그릇씩 들고 오명순 회장님 집에 모여 오손도손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회의를 진행하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날은 문리대 63학번이신 조원지 선배님께서 처음으로 동문회에 참가하시며 지나온 인생의 경로를 나누어 주시고, 늦깎이 나이에 마라톤에 도전한 얘기를 나누어 주시며 젊은 동문들을 자극해 주셨다. 또한 김경운 동문의 아버지 김인걸 (문 71) 선배님께서 잠시 손녀를 보러 한국에서 방문하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송년회에 참가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이날 송년회의 바램은 더 많은 Heartland 지역의 동문들에게 동문회의 소식을 전하고 동문의 밤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우선, 유학생의 감소라는 난제를 두고 어떻게 현재 동문회의 명단에는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동문을 독려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2019년 회장단뿐 아니라 미주 전체 동문회에 던졌다.

코네티컷 동창회 총회겸 송년회 개최

【기사: 유시영 (문리 68) 회장】
코네티컷 동창회 (회장 유시영)는 10월 6일과 12월 8일 2번의 모임을 가졌다. 우선 다음 회계연도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여 새 임원진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아직도 지부가 미약한 단계에 있어 현재 회장을 한 번 더 유예하자는 의견을 받아 드리게 되 회장직의 이양이 무산되고 더욱 발전하는 방안을 노력하게 되었다. 12월에는 한국 총동창회에서 보내오는 신문과 desk & small booklet calendar를 10부씩 받은 것을 share 하는 즐거움도 가졌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과 새로 이사하신 젊은 동문의 집도 방문하여 선물과 남은 달력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약 15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 약소한 감은 있으나 모이신 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매달 만나자고 한다. 앞으로 최소한 격월로 만나고 2월에 Millennium Theater에 갈 계획을 하고 있다. 작지만 고무적인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2019년에는 더 합심하여, 동문회 모임에만 그치지 않고 장학금 수여와 같은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모국의 위상을 높게 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다.

남가주 법대 동창회 2018 총회 및 송년회 개최

경품 추첨 및 노래자랑, 소음악회 개최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지난 12월 15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Hotel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가 열렸다. 채규황(법대 69)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교가 제창(반주: 제갈소망, 음대 92)으로 시작하여 최진석(법대 64)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윤경민 재무의 회계보고에 이어 최진석 회장이 김규현 고문에게 공로패 증정을 하였다. 단체사진 촬영과 민경훈 동문의 "우주의 역사" 강연이 있었다.

최진석 회장 인사말

점심식사 후 슬라이드 소개가 있었고, 경품추첨 및 노래자랑으로 이어지며 2018년 송년회는 끝났다. 다음 최진석 회장의 송년회 후기를 들어 본다. "이번 송년모임은 모든 동문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루어진 뜻깊은 이벤트였습니다. 80여 명의 많은 인원이 모였고 93세의 노택진 동문을 비롯하여 김수근, 신건호, 차상필, 노재성, 김종표, 김성호, 이응섭, 김낙중 동문 등은 오랜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김영자, 안규복 준회원님들도 함께하여 좋았고, 후원금도 많이 모여서 앞으로의 동창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감상, 생일축하, 강연, 경품추첨,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소음악회였습니다. 명찰을 준비해 주신 정인환 동문, 경품선물을 마련해 주신 이창신 부부, 김과케익을 가져오신 채규황 부부, 배경음악을 깔아주신 이응섭 부부, 그리고 접수와 안내를 맡아주신 윤경민, 채규황 부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와 진행에 수고하신 채규황, 이응섭, 이은수, 최송규, 김인종 동문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사로 애쓰신 민경훈동문, 공연으로 우리를 기쁘게 한 제갈소망, 김원선, 박예린 동문께도 감사드립니다.

교가를 제창하는 동문들

금년초, 임원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해서 그 목표를 거의 달성했고, 이것이 동창회 활성화의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카톡방을 개설하여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히 했고, 회원간의 소모임을 통하여 보다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경훈 동문의 "우주의 역사" 강연

기차여행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새로운 유대감과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기를 제작하여 법대의 상징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정기 오찬모임을 가졌고 꾸준한 만남과 상호 유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장에 연임되었으니 내년에도 이런 기운을 이어받아 활기찬 동창회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전화, 이메일, 카톡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동문들을 찾아 뵙고 위로하며, 관혼상제 의식에 빠짐 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좋은 여행계획을 만들어 다시 한번 추억과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주나 본국에서 방문하는 동문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도 만들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동문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음대 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

【기사: 손영아 (음대 85)】
지난 12월 11일 LA에 위치한 한식당 용수산에서 남가주 음악대학 동문회의 송년회가 있었다. 이번 송년회에는 음대 정기 연주회에 후원을 한 남가주 총동창회와 단과대 회장단 및 언론사 관계자들도 초대되어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미자(81) 동문이 진행한 1부 총회는 교가 제창으로 시작했다. 서정화(80) 회장은 인삿말에서 정기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 해마다 후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 단과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방은(62) 동문 등 지난 정기 연주회에 출연했던 연주자들도 많이 참석하였는데 동문 관계를 떠나서 팬과 연주자로서, 스승과 제자로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 배병옥(58) 동문 등 원로 선배들부터 김유은(07), 박예린(10) 동문까지 세대를 초월한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 동문 선후배 간의 애정과 우정이 넘치는 음대 송년회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2019년 김양희(77) 차기 회장은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도 음대 정기 연주회에 동문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당부했다.

이 날 이호(92) 동문의 3인조 스윙밴드는 차분하면서도 화목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고 뷔페로 준비한 다양한 한식 메뉴와 와인은 만족스러운 저녁으로 충분했다. 2부 행사는 특별히 총동창회 최용준(81) 총무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양한 게임과 래플 티켓 추첨으로 많은 상품이 전달되었고, 참석자 모두 선물을 가져갈 수 있게 준비되었다.

뜻깊은 전달식도 있었다. 평소 음대 후배들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수의대 김영(63) 동문은 송년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제갈소망(02), 이승현(04), 박예린(10), 박선우(14) 동문에게 장학금을 전했다.

음대 동문회는 내년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정기 연주회를 약속했고 또한 더 많은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보다 더 많은 후배 동문들이 참여하는 젊은 동문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2018년도를 마무리 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T: 978-835-0100

남가주 동창회 2019 이사회 개최

2019년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동문 선출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지난 1월 10일 남가주총동창회에서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에서 "제43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순서 및 특기 사항
- 이사 재적 93명 중 출석 37명, 위임 18명으로 55명으로 의결 정족수 확보
- 6시 30분 식사 후 7시 30분부터 최용준 총무국장의 사회로 순서에 따라 이사회 진행
- 참석자 인사 및 주요 업무 보고 진행
  사업보고(최용준), 감사보고(서류 보고로 대체), 재무보고(양수진)
- 2019년 사업계획 발표 (한귀희 차기회장)
- 2019년 수석부회장(2020년도 회장) 선출: 단독 출마한 민일기 동문(약대 69)을 홍성선 동문(약대 72)의 추천 사유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함

▲ 주요 안건 토의 및 의결 사항
1. 총동창회 부회장 인준:
회칙에 있는대로, 전년도 단과대학 회장을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자동 인준한다.
2. 추천된 선임이사의 인준:
2019년도 단과대학 회장의 변경 요청 전까지는 현 2018년 이사로 자동 인준한다.
3.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선임이사 정수 결정: 현행대로 등록된 동문 수의 5% 또는 2명으로 한다.
4. 회장 추천에 따른 감사 2명의 선출:

강신용 회장

한귀희 차기회장의 추천에 따라 최경석(사대 80), 강호석(상대 81) 2명을 만장일치로 감사로 선출함.
5. 수석부회장 명칭 변경:
현행 수석부회장의 명칭을 미주총동창회의 명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차기회장'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토의 및 표결 결과, 출석 이사 37명 중 찬성 25, 반대 12로 변경키로 결정함.
6. 회계연도 변경:

2019년 차기회장 민일기 동문 (약대 69) 선출

한귀희 2019년 회장,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현재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남가주총동창회 회계연도를 실무적인 편의성과 회계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꾸는 안에 대한 찬반 토의 및 표결 결과 출석이사 37명 중 찬성 25, 반대 12로 변경키로 결정함.
7. 기타 제안사항:
총동창회 은행 어카운트에 연계되어 있는 일부 단과대나 동호회(공대, 음대, 합창단 등) 어카운트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총동창회에서 분리하여 따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함.

2019년 수석부회장에 선출된 민일기(약대 69) 동문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그 날의 회의 내용을 요약해 준 이종호(인문대 81)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2019년 신년 하례회 개최

음악회, Wisdom Talk과 총회, 신임회장 80학번 양수진 동문 취임

【기사: 양수진 (간호 80)】
지난 한해동안 지루하게 메말랐던 캘리포니아에 샘물같은 단비가 죽죽 내리는 빗길을 뚫고, 2019년 남가주 간호대학 신년 하례회가 1월 12일 40여명의 동문들과 한귀희 2019년 남가주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모인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74학번 이호진 회장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 회장에 80학번 양수진 동문이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진 동문은 중환자실에서 Clinical Manager로 일하며 Nurse Practitioner 를 공부하고 있고, Westminster 신학교에서 Biblical Study를 Master하여 Education Coordinator로 봉사하고, 남가주 총동창회 2018년 재무국장을 지낸 동창회 일꾼입니다. 임기동안의 사업계획으로는 1. 사랑방 모임, 2. 문집 만들기. 3. Mentoring System 만들기. 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총무는 현재 NP로 Pain Clinic에서 일하는 백경희 81 동문이 맡게 되었습니다.

2019년 회장 양수진

소음악회

69 학번 장기자랑

제2부와 3부로 이어진 음악회와 장기자랑 그리고 게임시간에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숨겨진 재능들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Wisdom Talk시간에는 미래 에셋의 지부장 사대 80 최경석 동문의 부귀영화에 대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해 모두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희 81 동문이 맡게 되었습니다.

남가주 미대동창회 신년회 겸 정기총회 개최

【기사: 한귀희 회장】
지난 1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JJ Grand Hotel" 2층 우미관에서 서울미대 남가주 동문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24명의 동문이 참석한 신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는 2018년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재무보고와 새동문소개가 있었다. 73학번 동문 7명이 참석하여 모든 동문들의 부러움과 감탄을 자아냈다.

이날 모임에서 2019년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을 맡은 한귀희(68학번) 전임 회장의 총동창회 행사 소개와 협조 부탁이 있었다. 이어 신임회장 선출이 있었고 회화과 70학번 백혜란 동문이 2019년 서울미대 남가주 동문회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7년만에 미대가 맡은 총동창회 회장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미대 차원에서의 협조에 대한 결의로 7명의 선임이사(김화자, 현혜명, 김구자, 신정연, 윤태자, 장원경)가 결정되었다.

지난 16년간 쉬지않고 매년 가을에 동문전을 가졌으며 3년전 새로 시작한 '미대동문 작가 작품전시 및 옥션'이 총동창회의 성원과 협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남가주 미대 동문회의 앞날이 더욱 밝아 보이는 뜻깊은 행사였다.

▲참석자: 김경애, 김경옥, 김구자, 김영태, 김옥권, 김윤진, 김화자; 노성인, 박다애, 박수삼, 박영구, 박영국, 백혜란, 성수환, 손남수, 신정연, 신희정, 윤태자, 이명규, 장미현, 장원경, 한귀희, 한석란, 현혜명.

남가주 동창회 바둑동아리 연말 모임

글: 백옥자 (음대 71) 조직국장

서울대 남가주 바둑동아리(회장 김기형 상대 75) 아홉 분 동문님들이 년말 송년모임을 콘체르토 레스토랑에서 가졌다. 이번 모임은 전번 알파고 LA 문화원에서 행사를 크게 하고 여러번 바둑대회를 거쳐 마무리 송년파티이다.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안내받은 곳은 밖을 볼 수 있는 전체 창으로 된 자리가 아름다운 송년모임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모임 전, 바둑대회를 작가의집(김병연 회장 공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 함께 도착하셨다. 최진석 법대 회장님 Mrs 최께서 집뜰에서 따온 로즈마리와 초롱꽃이 테이블 위에서 한 층 멋진 장식이 되었다. 와인, 칵테일과 함께 음식의 주문도 각종 치즈와 랍스터 파스터, 피자, 카사디아 등 잘 어울려진 색깔이 각자의 마음을 녹인다. 먼저 와인으로 다 함께 축배하고 한 잔 두 잔 오가며, 볼그스레한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난다. 남가주 동창회의 이런 동아리들이 많아서 타주 동문들이 LA 로 이주하는가 보다.

신영찬(의대63)박사님은 오하이오에서 LA로 이주하셨다. LA의 따뜻한 기후도 좋고 바둑동우회에 참석하니 항상 바쁘게 지냈던 생활에서 바둑에 전념하는 여유로움을 가졌으며 동문들과 와인 한 잔에 오가는 정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수 있는 모임이었다고 하신다. 또한 법대 회장님으로써 법대 동창회를 한 층 발전시켜 동문들의 모임이 활발하며, 기차여행도 30명 다녀오시고 기금도 상당한 액수를 모은 *최진석(법대 64) 법대회장님의 소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즐거운 대화, 맛있는 음식, 뜻밖의 선물, 회원간 친목으로 뜻있는 모임이었다.라고 하신다.

이벤트의 왕(?) 김기형 바둑동우회 회장님은 "기후회 송년모임은 즐거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둑대회에서 신영찬 박사님은 최진석 회장 사범을 누르고 승리 두 분의 열정에 박수보냅니다. 그리고 민경훈(법대77) 논설위원과 최경석 Mirae Asset 상무(사대80) 동문께서 새 멤버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라며 인사말씀을 하셨다. Mrs.신영찬께서도 이대 의대를 나오시고 두 분 다 의사선생님이시다. 오늘 바둑승리에 김기형 회장님이 준비한 조개 브러치를 달아 주니 , 이런 것 처음 받아본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소녀같았다. 오늘의 바둑 참피언 신영찬 박사님께서 식사부담을 기쁘게 내셨다.

민경훈 한국일보 논설위원님은 신문에서는 많이 보다가 직접 동문회에 참여 모습을 보니 참 반가웠다. 행사 때마다 기타 반주로 매혹적인 음성의 사나이 이명일 약대회장(약대 72)님은 어딜가나 인기만점이다. Mirae Asset의 최경석 상무님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 서울대 참여가 처음이신데 너무 좋은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앞으로 더 열심히 동창회에 참여를 다짐하시고, 달력과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길 건너 회사를 보여 주시며 따뜻한 차 한잔을 대접해 주셨다. 이렇게 다 바쁘신 분들이 여유로움을 갖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에 동우회의 중요성을 새삼느낀다. 동우회가 있기에 동문들은 외롭지 않고, 각자의 취미에 맞게 동우회를 찾아 서로 모이며 즐긴다. 각자의 모임에서 돈독한 정이 싹터 큰 행사에서도 서로 어색함이 없이 활발해진다.

잔잔한 이런 모임들이 뭉쳐서 집결된 큰 동창회의 거목을 만들어 낸다.

로키마운틴스 동창회 2018 정기총회 개최

【기사: 최용문 회장】
지난 12월 8일, 로키마운틴스 동창회(회장 최용문)의 2018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2018년도 회계 보고를 한 후, 2019년도 새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새 회장단을 선출하기에는 부족한 수의 인원이(부부 포함 7명) 모인 관계로 다음 모임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 모임은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1시로 잠정 결정했다.

▲참석자: 김대건 (공대 62) 부부, 김봉전 (공대 68) 부부, 송요준 (의대 64), 이대식 (공대 64), 최용문 (공대 77)

남가주 동창회 해돋이 모임

윷놀이, 작가의 집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2019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날에 남가주 동창회 (회장: 강신용, 사대 72)에서는 해마다 있는 해돋이 모임행사를 가졌다. 박양종 (문리대 61) 고문이 그 날의 소감을 보내 왔다.

"LA 명산 그리피스 팍에서 설날 해맞이를 가졌다. 옷을 두툼하게 입고 참석한 동문들은 붉게 솟아오르는 해를 양손으로 듬뿍 가슴으로 안으며 자신들의 소원들을 간절히 빌었다. 그 모습이 정말 정겨웠다. 이어 서로들 'Happy New Year' 새해 인사를 나누며 하산, 낙원 식당에서 한귀희 (미대 68) 수석부회장이 제공한 떡국을 먹었다. 이어서 김병연 (공대 68) 전 총동창회장의 본산인 "작가의 집"으로 향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윷놀이였다. 윷놀이의 승패는 말을 잘 쓰는 것이렸다. 나는 어릴 적 시골 앞마당 멍석 위에서 머슴들에게 배운 실력으로 칠전팔기 끝에 마침내 챔피언으로 등극한 적이 있다. 오늘은 시작부터 즐거웠다. 시작이 으뜸이니 일년 내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지어다."

홍선례 (음대 70, 미주동창회 문화국장, 동창회보 LA 특파원) 동문이 12년 간 모아 두었던 기념품(배지, 티셔츠, 골프수건, 볼펜, 봉투 등)을 상품으로 제공하였다.

왼쪽부터: 강신용, 양수진, 민일기, 최경석

윷놀이 진행 및 준비는 다음과 같았다.
▲ 진행: 민일기 (약대 69)
▲ 수상:
특등: 박양종 / 홍선례,
1등: 최진석 (법대 64, 법대회장) / 손영아 (음대 85, 문화위원)
2등: 민일기 (약대 69) / 이학진 (농대 72)
3등: 박상길 (농대 58, 전 총동창회장) / Mrs. 민일기 (약대 69)
도우미: 손영아 (음대 85, 문화위원)

새해 첫 날, 그리피스 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소원을 비는 이 행사가 해마다 이어지길 바라며,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새해의 복을 빈다.

'준이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 개최

【기사: 허유선 (가정 83) 편집위원】
뉴욕 지역 골든클럽 명예회장 이준행 (공대 48)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준이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12월 27일 뉴욕주 롱아일랜드 맨하셋 소재, 펄이스트 식당에서 있었다. 모국 총동창회의 임광수 명예회장님과 공대 동기 동창이신 이준행 동문은 뉴욕지부 장학금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셨고, 모교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4년전 창립된 준이 장학재단은 올해 김현우, 장미나, 이하늘, 김선엽, 레베카 페도 등 5명의 학생에게 2,500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특별히 이번 수여식에는 뉴욕지부 골든클럽의 현직 회장단 임원과 원로 동문의 참석으로 더욱 자리가 빛났다. 골든클럽은 오는 3월 23 일 4시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츄리 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질 예정이며 문의는 홍종만 (공대 64)부회장에게 RSVP를 하면 참여할 수 있다. [홍종만, Cel: 646-342-2667 / Hong1945@gmail.com]

골든 클럽 임원, 원로 동문 축하 방문

조재길 (사대 61) 동문 자제 토니조 판사 취임 선서식

토니조_선서식에 참가한 토니 조 판사 가족 (우측 부터) 앤디 조(가주 교통국 변호사, 형), 조재길(전 세리토스 시장, 아버지), 루시 조(어머니), 토니 조 판사, 에스터 김(가주 검찰청 검사, 약혼자), 지아 김(뉴욕 주 변호사, 여동생), 혜빈 김(조카), 마이크 김(로펌 커크랜드 앤 엘리스 파트너 변호사, 매제)

【기사: 조재길 (사대 61) 동문】
전 세리토스 시 시장을 지낸 조재길 (사대 61) 동문 자제이며 지난해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토니 조 신임 판사의 선서식이 지난 1월 3일 LA 다운타운의 스탠리 모스크 법원에서 가족 및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LA카운티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판사직에 당선된 수잔 정 판사가 주제한 이날 선서식에는 잭키 레이시 LA카운티 검사장과 스티브 쿨리 전 검사장, 도로시 김 항소법원 판사, 앤 박, 리사 정 등 20여 명의 로스앤젤레스 수피리어 법원 판사를 비롯해 많은 법조인들과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조 신임 판사는 "가족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원동력"이라며 가족들에 대한 감사에 이어 그동안 선거 캠페인을 도와주고 지지해준 검찰청 동료들과 한인 판사들을 비롯한 한인커뮤니티의 지원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변호사, 검사 시절에 쌓은 경험을 밑바탕 삼아 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토니조_토니 조 신임판사의 취임 선서를 주제하는 수잔 정 판사

토니조_LA 카운티 신임 판사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세리토스 위트니 고교를 나와 UC 어바인 대학과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4년 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LA 카운티 검찰청에서 검사로 13년간 근무했으며, 1월 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판사로 공식 취임해 향후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1월 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최종 개표 결과 127만 1940표(55.6%)를 획득해 경쟁자인 홀리 핸콕 후보를 가뿐히 따돌리고 당선됨으로서 조재길 전 세리토스 시장(2007-2015년)에 이어 최초로 한인부자가 선출직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서용선 (미대 75) 동문

뉴욕 Mizuma. Kips & Wada Art에서 개인전 개최

서용선 (미대 75)

41번지, 91x117cm, Acrylic on canvas, 2005

【기사: 김원영 편집인】
한국의 중견 작가인 서용선 (회화 75) 동문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뉴욕 맨헤튼 Mizuma. Kips & Wada Art에서 개인전을 연다. 전시 주제는 'Utopia's delay: The painter and The Metropolis'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도시 문명 속 소외, 전쟁의 기억 등, 깊은 고뇌와 결핍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불안한 정서를 강렬한 표현과 과감한 원색 처리, 그리고 대상을 고도로 간략화한 스냅 사진같은 작품들을 선 보였다.

2008년 모교 미대 서양화과 교수직을 내려놓고 작업에만 집중하는 서 동문은 2009년 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그리고 2014년도 이중섭 미술상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역사화가로 알려진 서 동문은 역사화 연작이나 도시 인간 군상을 그린 도시화 연작을 주로 다뤄왔다. "그의 화풍의 특징인 불안정한 사선구도, 거친 붓 터치, 과감한 원색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표현주의적인 작품에 속한다."

1월 9일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에는 많은 일반 관람객들과 동문이 방문하여 서 동문의 전시회를 축하했다. 서 동문은 일본, 호주, 독일, 미국 등의 여러 도시에서 개인전, 단체전 작가 거주프로그램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고태화, 이미화, 서용선, Mr. 이미화, 김차섭, 김명희, 손대홍 동문

남가주 미협 50주년 정기전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남가주 한인미술가 협회(회장 미셸 오) 제50회 정기전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남가주 미술가 협회는 1964년에 발족하여 1970년에 정관을 작성하고 본 협회 명칭을 개칭하며 그 이후 많은 세월, 수많은 화가들이 영혼 속에 있는 작품들을 남가주 미협 정기전에 사랑과 열정을 쏟아 반세기를 지켜 왔다고 한다. 이 정기전에는 남가주 미협회원 작가와 초대작가 78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 서울대 동문14명이 참가했다. 10월 19일 개막식에서 미셸 오 미협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에 교두보 역할을 다짐하며 50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선배 작가들의 노고와 LA 한국문화원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참여 동문: 강영일 (72), 김경애 (83), 김윤진 ( ), 박다애 (73), 박영구 (85), 박영국 (66), 백혜란 (70), 성수환 (59), 신정연 (61), 윤태자 (62), 주선희 ( ), 한석란 (71), 현혜명 (61), 홍선애 (62)

김창무 (음대 53) 동문 구순 잔치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지난해 10월 11일, LA에 위치한 강남회관에서 음대 원로 김창무(음대 53) 동문의 구순잔치가 열렸다. 첫날은 음대 원로들의 파티였고, 이방은(음대 61) 동문의 무반주 첼로 연주는 분위기를 더욱 빛내 주었다. 둘째 날인 10월 13일에는 LA의 용수산에서 가족과 친지들 80여 명이 모여 축하했다. 모두들 100세까지 사시라는 인사에, "난 오늘까지 살아도 되요. 이 90세 파티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으니..."라고 말했다.

김창무 동문 부부

김창무 동문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3년간, 제3대 음대회장을 역임했고, 남가주 음대동창회 발전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김창무 동문은 음대 성악과를 졸업했다. 그 당시 이북에서 내려와 경제문제 등 생활고로 음악공부를 뒤늦게 시작하였다. 때마침 1958년, 당시 음대 현제명 학장의 추천으로 아시아 재단에서 주는 정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길에 올랐다. 필리핀 국립대학교. 그러나 세계 무대에 나가 보니, 공부가 늦은 감도 있고 신체적으로 작은 체구가 불리했다.

그 후 LA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초빙 받아 도미하게 되었다. 당시 LA에는 한인교회가 세 군데 있었다. 한인사회는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 LA 에 거주하고 있는 3, 4인의 음악인들을 모아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300여 명의 관객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 후 동양인 최초로 악기점(CM 음악사)을 열어 20여년 간 운영했다. 그 후 교회도 많이 생겨 나고 음악단체, 합창단 등이 늘어 음악사회가 발전해 오고 있다. 지금은 한인 나성영락교회에서 명예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 2019년도 장학생 모집

【기사: 김원영 편집인】
에드워드강 (사대 60) 동문이 운영하는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에서 2019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대상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며 학부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금은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각 $5,000이 지급되며, 응모 마감일은 2019년 2월 1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edwardkangfoundation.org 에서 참조 바람]

Scholarship Announcement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academic year 2019~2020 scholarship opportunities for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full-time college degree or graduate degree programs.

Scholarship Amount
Each scholarship recipient will receive a financial scholarship of **$5,000.00.**
Up to ten (10) scholarships will be granted.

Eligibility Requirements
Each applicant must be:

a Korean-American college or graduate student from New York, New Jersey or Connecticut; enrolled full-time in a college degree or graduate degree program during two semesters of the academic year 2019-2020; and a United State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www.edwardkangfoundation.org

Edward and In Aie Kang Foundation, Inc.

오(조)봉완 (법대 53)

<영화 감상>

"국가 부도의 날"을 보고

11월 29일 저녁에 중앙일보 주최로, 영화 " 국가 부도의 날"의 시사회가 나일스에 있는 AMC 영화관에서 열렸다. 150여 명의 시카고 지방 한인들이 관람하여 뜻있는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이영화는 1997년 11월에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경제 위기, "IMF 위기"에 대한 이야기다. 김혜수, 유아인 두 인기 배우의 슬기 있는 연기로, 풍전 촛불 같은 처지에 있었던 한국의 상태를 관람객들의 손에 땀이 나도록 잘 묘사 해 주었다. 이런 기회를 베풀어 준 중앙일보사에 감사드린다.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아시아 경제 위기라고도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 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을 휩쓸었다. 그 해 7월에 타이랜드에서 시작하여 연말까지는 이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아세아 국가가 거의 없었으나, 그중에서도 한국, 인도네시아, 타이랜드의 상황이 제일 격하였다. 그 원인은 국내외 정치, 경제, 연결된 현대 세계의 복합한 상황에 있어, 이 지면과 필자 지식의 부족으로 이곳에서 언급할 수 없음을 미리 말하고 싶다. 다만, 역사가로서, 그날 저녁의 영화 를 관람하면서 느낀 바를 몇자 적으려 한다.

영화를 관람하던 중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 올랐다. "부도"란 말은 "죽음" 다음으로 제일 큰 공포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개인의 빚이 많아 갚을 수 없으면, 즉, 부도가 나면, 노예가 되어, 자기 일생 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의 신분을 벗어 나지 못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개인에게 부도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데, 한 나라에게는 어떨까? 나라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 나라의 "죽음," 즉, 나라의 존재가 없어 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조선 왕국 멸망 5년전에 있었던 이야기, "국채 보상 운동,"이 문득 생각났다.

때는 1905년 말에서 1906년 전반의 이야기다.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제국은 조선제국에게 을사조약 (일명, 보호조약) 을 강요하여 조선의 외교 주권을 강탈했다. 이조약을 반대하여, 민영환을 비롯한 중신 몇분이 자살까지 하였다.

"나라가 곧 망한다." "조선이 일본에게 빚을 많이져서 그렇다"는 소문이 민간에 퍼지자, 길가에 행상인들이 늘어 섰다. 이들은 물건을 팔러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금 은 비녀, 노리개, 보석 반지, 팔지들을 나라에 바침으로서 나라를 구하려고, 보자기를 들고 나와서 있었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 었는가?

나라가 망하기 몇년전의 혼란 속에서 이 보물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들 손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고종 황제께서 소문이라도 들으셨는지 알 수 없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조선 민족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긋하였지만, 집권자 간의 나라보다 사익을 차리는 사람이 득세 했다는 것, 또, 시기가 너무 늦어,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후, 112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세상이 여러번 바뀌어, 일제 강점시대를 거쳐, 나라가 분단 되고, 남북에 극 반대 이념하에 두 나라가 세워졌다.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나, 동족간의 전쟁이 일어 났고, 독재 라는 진통 시기가 지난 후, 1987년에야 민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IMF 위기는 10년 후 일이다. 그렇지만, 조선제국 말년, 1905-1906년의 "국채 보상 운동" 시기와 1997년의 IMF 화폐 위기 때와 유사성이 있다고 느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유사성은 일반 국민에 관한 상황에 국한 돼 있다. 대한 제국시대와 같이 국가 경제 파탄으로 막중히 고생한것은 일반 국민이었다는 것이 유사성의 하나다. 1997년에는 일가정의 재정이 진탕되어 가주가 자살한 일이 허다했다. 자살율이 42% 늘었다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했다. 11월 29일에 관람한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은 1905-1906년 대한제국 국민들과 비슷한 일을 했다. 금은 패물, 가족의 보물들을 은행에 바치면서 국가의 부도를 막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의 희생이 현대 국가의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상 알 수 있는 일로서, 결국은 한국은 IMF의 구제를 받아야 했다.

이런 국민의 희생은, 영화에서 보여 준대로, 극소수의 거부들, 고관 고층의 인물들, 재치있는 기회주의자들의 행동과 대조된다. IMF 위기는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 재산은 보다 더 늘고, 권세는 더 강해졌고, 신생 거부도 나타났다. 사회적으로도, 1997년 경제 위기는 여파가 컸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가정이 파탄됐다. 어린 아이 갖은 부모들의 가출, 이혼의 급증으로, 많은 고아들이 나타났다. 그전의 한국식 사상으로는 생각 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20여년 후인, 현재 한국에서 상영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육원에서 고아로 자란 20대 후반, 30대 초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허다하다.

국내 정치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위기가 발생한지 한달후인 12월 17일에 대선이 있었다. 그전까지 유세했던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 했다. 일반 국민의 인식이 경제위기가 집권자들의 과오라 생각했던것이다. 30여년의 민주화 운동중, 4회의 암살 시도를 극복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49년만에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 했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 민국 국내 정치의 격변이라 아니할수 없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가 됐다 할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당선은 1997 년 경제 위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IMF 경제 위기의 의외의 여파는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에 획기전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위싱턴주 동창회, 김재훈 (공대 72) 동문의 미국 생활기

한인 1세대에겐 '롤모델', 2세대에겐 '멘토'- 김재훈 (공대 72) 동문 (보잉기술연구소)

미국 항공산업의 상징인 보잉사의 싱크탱크인 보잉 기술 연구소(Boeing Research & Technology • 팬텀 웍스 (Phantom Works))'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훈 박사는 한인 1세대에겐 '롤 모델'(Role Model), 2세들에게는 최고의'멘토'(Mentor)라 할 수 있다.

김 박사는 현재 보잉사의 연구 • 개발(R&D)의 핵심인 보잉기술연구소에서 기술임원 연구위원인 'Executive/Senior Technical Fellow(STF)'직책을 맡고 있다.

보잉에서 연구 분야로는 최고 직급이고 보잉에서 근무하는 수 만명의 과학자들이 평생 꿈꾸는 자리다. 이보다 높은 직급인 부사장과 사장 등은 과학자 타이틀이 아니라 경영자로 전공 (Job Code)을 바꿔야 한다.

김재훈 (공대 72)

김재훈 (공대 72)동문은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 온 이민 1세대로 세계 최고 기업에서 한국인으로는 기술분야의 최고위직인 기술임원(연구위원)으로 오른데다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력 증진에 남다른 공헌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공계 출신 박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매달려 한인 사회 봉사 등에는 나설 겨를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김 박사는 전 세계를 누비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인 차세대나 후세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출처: '시에틀 이야기', 저자: 황양준]

현재 대략 20여만명에 달하는 보잉 전체 임직원 가운데 김 박사와 같은 STF는 10여개의 항공기술분야에서 3개 회사 (상업용 비행기 사업부문, 국방우주 산업부문, 글로벌 서비스 사업부문, 그리고 CTO/기술연구소)에서 분야당 각 2명씩 60여 명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은 항공기 몸체 (Structure), 날개 (wing), 엔진 추진 (Engine propulsion),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다. 김 박사처럼 차세대 항공 우주산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통신과 네트워킹 분야의 STF는 보잉기술연구소에서 김 박사를 포함해 단 2명뿐이다. 항공산업의 지상통신은 물론 무선 통신, 위성통신, 군용통신, 항공무선 인터넷 등 통신과 네트워킹과 관련한 모든 기술개발을 책임지는 위치다.

미 국방성 Pentagon에서 찍은 사진

김 박사는 보잉이 추구하고 있는 항공기 통신분야의 청사진, 즉 로드맵을 설계 •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래전의 성패를 좌우할 무인 정찰기 (UAV)와 조기경보기 (AWACS), 무인항공기는 물론 미래전투시스템 (FCS • Future Combat System)의 통신과 네트워킹 개발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게 주요 임무다.

시카고로 본사를 옮겼지만 워싱턴주에 사실상 둥지를 틀고 있는 보잉사는 크게 상용여객기, 비즈니스기 (Business Jet) 등 상업용 비행기사업, 국방우주 및 사이버 보안사업, 최근에 설립된 글로벌서비스 사업, 그리고 최고기술책임자 (CTO • Chief Technology Officer)산하의 연구 • 개발의 핵심 센터인 보잉기술연구소로 분리돼 있다. 김 박사가 소속돼 있는 기술연구소는 주로 5~10년 앞을 내다보는 선행기술과 10년 이후 장기적인 신기술 창출 • 연구를 주도하는 곳이다.

김 박사가 보잉사에 입사해 기술관련 최고위직으로 오르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까지 25개 이상의 보잉 연구 기술상을 수상하고, 100여편의 과학기술 논문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연구개발에 노력을 해왔는지는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 • 석사를 마치고 1981년 유학 길에 오른 그는 1986년 Gainesville에 있는 플로리다 대학 (University of Florida)에서 광통신소자 및 시스템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Pasadena)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 • Caltech) 소속인 미국 NASA 항공우주센터 제트추진연구소 (Jet Propulsion Laboratory)에 그 당시 외국인 유학생 비자 (F-1 Visa) 소지자로서는 쉽지 않은 공개 경쟁을 통해 입사해 Senior Scientist 겸 Task Manager로 5년간 일하다 보잉사로 스카우트되어 1991년 직장을 보잉 하이텍센터 (당시 Boeing High Technology Center • 후에 보잉기술연구소로 통합)가 있는 시애틀로 이주했다.

보잉에 입사한 90년대 초반에 상업용 비행기'보잉 777'의 광통신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광통신 발 • 수신기인 '파이버 옵틱 트랜스미터 • 리시버'(Fiber Optic Transmitter • Receiver) 개발팀에 합류해, 2년 만에 세계 최고 성능의 광통신 트랜스미터 • 리시버 (Transmitter/Receiver • Tx/R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박사는 "보잉 777기 개발 당시 광케이블을 이용한 새로운 통신기술인 광데이터 전송기술 (FDDI)로 정보를 광대역으로 빠르게 분류하고 단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 기술로 기내 좌석에 주문형 비디오를 위한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설치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업용 비행기로는 보잉 777기가 처음으로 광통신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김 박사와 연구팀은 이후 군사용 통신 MIL-STD-1553 데이터버스 Data rate를 1Mbps 에서 20Mbps로 성능향상 (Upgrade)을 위해 세계 최초로 1/20 Mbps 이중 데이타속도 광통신 발 • 수신기(AS-1773 Dual Rate Fiber Optic Transceiver)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국방고등연구정책국(DARPA)에 제공했다.

곧이어 세계적인 통신 장비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스(Cisco Systems)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Network Mobile Router'를 개발, 오늘날 비행기 • 기차 • 버스 등 움직이는 교통수단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상업용 무선통신시설이 없는 곳에서 군용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Tactical Mobile Ad-Hoc Network (MANET)를 연구 개발하는 미해군연구소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김 박사는 2009년에 보잉사 대표로 'Asian-American Engineer of the Year Award'상을 수상했다.

현재까지 20여개에 달하는 국방부 국방고등연구정책국(DARPA) 및 육 • 해 • 공군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현재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콘트롤하는 네트워크 (Software Defined Network • SDN)와 정보위주의 네트워크 (Information Centric Network • ICN)를 통합하는 새로운 군용'전략 무선통신 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 박사는 보잉에서 받은 25개 이상의 우수연구기술상 이외에도, 10여개의 NASA 신기술상 (New Technology Award)을 수상하고, 미국 특허 10개 (pending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2권의 책을 편집자 (Editor)로 편집했다.

김 박사는 워싱턴대학 (UW) 전기공학과 대

National Engineers Week 수상 장면

학원 겸임 교수까지 하는데다 한 달에 2~3번 이상 출장을 다닐 정도로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한인 차세대와 후세들의 인재양성에 남달리 공헌을 해오고 있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 (KSEA)에서의 활약은 그가 한인 후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준다. 버지니아 비엔나 (Vienna, VA)에 독립 회관까지 갖추고 석 • 박사급 회원 1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거대 조직인 KSEA는 다른 친목 단체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기술교류를 주도하며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해 오고 있다. 각종 장학금과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을 통해 한인 1.5~2세들에게 과학기술자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김 박사는 이 조직의 핵심 멤버다.

KSEA는 미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이다. 현재도 연회비를 내는 정규회원만 6,000여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대표 단체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 • 기술 교류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를 포함해 한인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71년 창립됐다.

KSEA는 매년 1,000여명의 한인 과학기술자,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 과학기술계 지도자 (한국에서 400여명, 미국 600여명)들이 참여하는 한미학술대회 (US-Korea Conference), 전미주 수학과학경시대회, 차세대 기술 & 리더십 컨퍼런스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보잉 입사로 시애틀로 직장을 옮긴 김 박사는 KSEA 시애틀지부 회장을 맡았을 당시인 지난 1998년 초등학생인 4학년부터 고등학생인 11학년까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경시대회를 창설했다. 특히 시애틀지역 한인 행사로는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학경시대회는 4년 뒤인 2002년부터는 미국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전미주 대회로 확대됐다. 또한 2007년에는 수학경시대회와 더불어 과학적인 주제를 협동으로 풀어보고, 만드는 과정을 실습해보는 KSEA 과학경시대회를 만들었다.

이 행사에는 매년 시애틀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한인은 물론 공부를 잘하는 중국계나 인도계 등의 학생들도 참여하

고 있다. 현재까지 20년 넘게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김 박사는 이 대회가 학생들의 경시대회로만 끝나지 않고 존경받는 인물을 초청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하는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지난 2010년에는 KSEA 전국 총회장을 맡았으며 시애틀에서 한국과 미 전국에서 한인 과학자들이 총집결하는 전국학술대회 (Us-Korea Conference • UKC 2010)를 개최했고,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의 인적 정보를 통합하는 인명록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KSEA 전체 회장으로 재임시에는 미래의 과학기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젊은 과학기술 연구자상 (KSEA Young Investigator Grant Award)을 제정하여 매년 과학 • 기술 분야 각 1명씩 2명에게 1인당 1만달러의 상과 UKC에 초청하는 부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또한 재미과학자협회 최초로 KSEA TechBook Series를 시작해 그 첫 번째 책으로 UKC 2010에 발표한 전문가들의 논문을 위주로 <Green IT: Technology and Applications>를 편집해 2011년 세계적인 출판사인 Springer-Verlag Publisher에서 출판했으며, 3년뒤에KSEA TechBook Series의 두번째 책으로 <Biomedical Engineering: Frontier Research and Converging Technologies>를 출판하도록 후원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으로 살고 있는 김 박사는 지난 2013년부터는 미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한국학교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주 시애틀 • 벨뷰 통합한국학교를 운영하는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신의 성공뿐 아니라 한인 차세대 인재양성과 후세들의 민족교육까지 맡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08년 워싱턴주 서울대 동문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2009년 SNU Senior Club 주최로 SNU Forum 월례 세미나 창설을 주도해 매월 다양한 주제 (정치 • 경제, 과학 • 기술, 사회 • 문화, 예술 • 여행)에 대해 초청인사 강의와 토론을 9년째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그의 대외적인 활동은 부인인 김명호씨의 적극적인 내조 및 동참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자녀로 Microsoft에 근무하는 아들과 서울대 후배이며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FHCRC)에서 뇌과학자로서 알츠하이머 (Alzheimer) 연구를 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

김 박사는 모국과 해외동포 현지 교민에 대한 사회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 National Engineers Week에서는 그동안 이룩한 과학기술업적에대해 보잉사대표로'Asian-American Engineer of the Year Award'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시애틀 영자 신문 아시안위클리 (Asian Weekly Newspaper)가 선정한'2013 Community 최고 공로상 (Top Contributor)'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한미연합회 (Korean-American Coalition)가 선정한'2014 Community 봉사상 (Service Award)'을 수상했다.

기고글 모집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기고문이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제 어느 형태나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동창회는 매월 회보의 1면 톱 기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특별 주제를 정하여 그에 맞는 기사나 기고문을 동문 여러분으로부터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시어 1면 톱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사 및 원고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맞는 주제에 대한 기고 및 원고를 저술하시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문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가는 회보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그룹이 多數 多回 지면을 차지하는 그런 회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윤상래 드림

월별 1면 게재 내용 및 주제

Month	1면 게재 내용	특집 주제
2월호		미국을 보는 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에 사시면서 경험하고 느끼신 소회)
3월호		**3.1 운동 100주년과 그 의미**
4월호		**4.19의 의미,** **회보 300호 발행 기념** (동창회보 창간에 참여한 동문 혹은 회보 창간호를 가지고 계신 동문을 찾습니다.)
5월호		5.16의 의미
6월호		6.25 한국 전쟁 (회상 및 증언 남기기). 한반도 민족 갈등 해소 방안 제언.

보내실 곳: 이메일 news@snuaa.org

새로운 기획 시리즈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소중한 경험 등을 담은 기고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시리즈 토픽을 참고하시어 많은 기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문의 창> 신설
1면 하단에 박스 칼럼으로 <동문의 창>을 신설했습니다. 500단어 내지 750글자(스페이스 포함) 정도로 동문들의 견해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 정도의 글을 받습니다.
(분량은 모교 동창회보 1면의 "관악춘추" 보다 약간 적은 것을 희망합니다.)

미주 동창회원들이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딘 날에 대한 회고

인생 후배들에 주고 싶은 조언 이나 교훈 - 그들의 보다 나은 미래 항해를 위하여
*예: 후배들에 교훈을 준다면...? 인생의 요체는 무엇인가...

미국에 살다보니...
(미국생활에서 감명 받은 일이나 실수한 것 등 일화 소개)

동문 자녀들의 미국 생활의 소개나 인터뷰 글 받습니다.
(동문의 후예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등)
예: 회보에 이미 실린 기사
- 이상윤(David Lee, 프린스턴대 부총장, 이성수 동문(사대 55) 아들 (2013년 7월호)
- 미셸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 이상열 동문(의대 65)의 딸 (2009년 8월호)

지역 동창회 소개 계속 받습니다. (아직 소개 되지 않은 지부입니다)
- 코네티컷, 북텍사스, 애리조나, 오레곤, 오하이오, 유타, 중부텍사스,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하트랜드, 휴스턴

지역 회장단 신년인사

아름다운 전통을 키워가는 지부 동창회와 미주동창회가 2019년을 맞아 더욱 화목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앨라스카 동창회

윤재중 (농대 55)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 동문 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다복함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였지만 미주 동창회의 발전과 단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윤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Alaska는 지역 특성상 현지 몇 분 남지 않은 회원이지만 형제지정으로 뭉쳐 지역사회 봉사 사업에 적극 참여 서울대인으로서 품위와 긍지를 지키며 노후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차제에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며 하시는 일 빈틈없이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하와이 동창회

성낙길 (문리 77)

2019년 새해를 맞이 하여 동문 여러분의 건강을 빌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가주 동창회

강신용 (사대 73)

동문 님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19년 남가주 동문회는 해돋이 행사를 했습니다. 새해 첫날 신새벽 햇살 먹고 떡국도 대접했습니다. 꿈자리 황금돼지가 통째로 굴러들어오는 기해년입니다. 넉넉한 동문회 살림과 동문들의 재복을 기원합니다.

서울대 동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곳에 우리가 있고 미지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서울대의 "Veritas lux mea"는 영원히 가슴에 있습니다. 늘 올곧은 "진리가 발하는 불빛"이 미주 사회를 비출 것입니다. 소망 성취하는 새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워싱턴주 동창회

류성렬 (공대 72)

안녕하세요?
워싱턴주 류성열입니다.

황금돼지해라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 모든 동창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한 댁에 행복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워싱턴 지부도 올해 한 해 새로운 각오와 생각으로 본부 및 각 지역 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더욱 더 발전하는 지역동창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텍사스 동창회

강성호 (수의 81)

올해부터 2년간 북텍사스 동창회 회장을 맡은 수의학과 81 학번 강성호입니다. 작년까지 70학번대 선배님들께서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이제부터 80학번 대로 새로운 장이 열린 듯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동창회에 참석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많은 수고와 후원으로 동문들의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회 및 교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 등 매년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문님들을 위한 야유회와 골프모임 그리고 장학사업과 연말 총회 모임 등을 주관하여 동문님들께는 이민 생활 속에 활력소가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가주 동창회

한귀희 (미대 68)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동문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을 맡은 한귀희입니다. 윤상래 회장님을 비롯한 미주동창회 임원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동창회 회보가 현대적인 깔끔한 활자와 지면 배치로 보는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받은 지난 12월호는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임원들께서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가주 지부는 전임 회장님들이 자리매김 해놓은 춘계 골프대회, 미대육선, 헐리우드볼 가족 음악회, 노동절 가족캠핑, 선배 초청 오찬 등의 여러 행사를 통해 더욱더 동문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학번 이후의 젊은 동문들의 참여율을 높히려고 임원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이번 저희 임원 구성원이 80, 90, 07학번까지 30여명의 젊은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앞으로 전해드릴 남가주 지부의 소식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모든 서울대 동문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동창회

김병윤 (문리 65)

여행 중 지도상에 그려져 있는 작은 점을 찾아 나섰다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자연 풍경을 만났을때 행복과 감사의 단어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으나 우리가 몰랐던 보석 같은 자연풍경들과 인연들을 만나는 행복을 느끼시듯 2019년을 맞으며 미지의 날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즐겁고 마음에 부를 가득 쌓는 황금돼지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멀리 있어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마음속에 그리움을 간직하며 사는 소중한 동창회, 너와 나만의 동창회가 아닌 우리들의 동창회로서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미주 동창회, 나눔의 동창회, 그동안 역대 회장들께서 쌓으신 전통을 이어 가는 미주 동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동창회 모임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는 한해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트랜드 동창회

오명순 (가정 69)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트랜드의 선 후배 동문 님 그리고 가족들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동문 님들의 많은 참여와 하트랜드 동창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윤은상 (상대 66)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미주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뉴잉글랜드 지역 동문들의 따스한 마음과 소망을 서울대 미주 동문 모두에게 전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미국 50개주 전역의 도시와 타운 근교에서 거행되는 First Day Hike! 보스턴 가까이에 있는 Blue Mountain 산자락에 수백 명의 인근 주민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산행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뉴잉글랜드지구의 '산우회' 동문들이 높고 낮은 능선을 오르고 내리며 모은 새해 첫날의 맑은 기운을 여러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주 한인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135년전 젊은 개화파 한인들이 보빙사절단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곳 Blue Mountain 아래의 농사시험장을 견학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의 새해 첫날 Hike 길이 회상 속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모교 사랑으로 동문회를 도와주시는 선배님들, 동문 모임 때마다 솔선수범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는 후배님들, 오랜만에 만나 옛정을 되찾으며 즐거워하는 동기님들, 새해를 맞는 기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동문들의 깊은 정성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키워가는 지부 동창회들과 이들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는 총동창회가 2019년을 맞아 더욱 화목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커네티컷 동창회

유시영 (문리 68)

이제 옛것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으니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마음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제 어지러운 미국은 동트는 태양처럼 하늘에 높이 떠올라 평화와 자유의 영적인 귀감이 되고 따스한 사랑을 온 누리에 비추는 풍요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조국은 놀라운 경제적 비약과 한류의 찬란함을 되찾고 그 추진력으로 평화와 안정의 땅으로 통일의 성취를 향해 약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또 관악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염원으로 자만에 도취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열망에 부응하며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깊이 고민하며 그에 걸맞은 행함이 있도록 몸부림 쳐야 하겠다.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같이 사역할 수도 있고 인생에 실패해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도 도처에 즐비하다.

한 번에 그리고 쉽게 이루어 지는 일은 없으나 묵묵히 조금씩 앞을 향해 걸어가리라 작정한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전무식 (수의 61)

지난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반목과 갈등으로 영일이 없었고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행렬, 양대국간 무역전쟁, 그리고 연말에 닥친 세계적인 금융,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어수선했던 연말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모두 성실하게 관리하여 즐겁고 보람된 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닥쳐 올지도 모르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건강의 축복이 동문들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욕지역 동창회

손대홍 (미대 79)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희망찬 새해 기해(己亥)년을 맞이하며 동문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뉴욕지역 동창회는 지난 해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연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창회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뉴욕 동창회는 동창회의 미래를 위하여,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동문들과 소통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동창회의 역할과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은 이곳 뉴욕에서 미주동창회의 평의원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동문들을 반갑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워싱턴 DC 동창회

정평희 (공대 71)

지부장을 맡은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우리 지부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참 동문부터 이제 막 졸업하고 유학 와 있는 젊은 동문들까지 모두 동창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아크로 폴리스(80학번부터 99학번 까지) 와 샤로수(2000 학번 이후) 모임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동창회가 점점 더 젊어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부 소식을 알리는 eNewletter를 발간하기 시작 하였는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를 모아 계속 나아가려고 2019년에도 동문들의 친목과 networking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도까지는 동창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후반기부터는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나아 가려 합니다. 미주 동창회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아서 서로 가깝게 소통하는 서울대 동창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네소타 동창회, 김권식 (공대 61) 동문의 미국 생활기

미네소타주, 태양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 EVS 김권식 (공대 61) 동문

'EVS, Inc' 회사는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 하나로 동종 업계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그는 환경공학과 토목설계에 주력하던 초창기 사업모델을 확장한 뒤, 태양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회사를 키워냈다. EVS, Inc. 는 미네소타에서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MEDA(Metropolitan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의 혁신적 마이너리티 기업가로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비영리 교육 기관인 'Educate Tanzania, Inc. (ETI)'의 기업 파트너로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

김권식 (공대 61)

김권식 (공대 61) 동문은 1943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 모교 항공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항공학 석사와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EVS, Inc'의 사장으로 일하며 사회사업 재단 'EVS CARES'를 발족하여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즉 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어린 시절과 미국에 오시게 된 계기

김권식 동문은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야생동물을 무서워하고 언제나 누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겁 많고 숫기 없는 왜소한 아이였다. 그러나 금산에서 인삼밭과 유통사업을 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셨던 아버지의 사업가 기질과 인간미를 빼닮은 그는 어린 시절 존경했던 위인 링컨의 영향으로 차분하면서도 낙관적인 보스가 되었다. 직원들은 그를 피하거나 그 앞에서 경직되는 법이 없다. 자연스럽게 그를 믿고 따라준다.

군입대 후 그는 유학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일을 경험하게 된다. 부대에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중학교 과정의 신우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는 교사로 지원해 섬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다. 학구열이 뜨거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도전과 자극을 받아 1년 동안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하여 미네소타 대학으로 진학했다. 미네소타 생활 2년 후,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항공과의 장학금이 중단되었고 마침 장학금을 보장해준다는 토목공학과로 전과하게 되었다. 에드 바워즈(Ed Bowers) 교수의 지도 덕택에 별 무리 없이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며 살아 오셨는지

1975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네브래스카 주정부 천연자원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내는 유학 초기 부터 자격증을 딴 키펀치 경력이 도움이 되어 '컴퓨터 데이터 뱅크'에 함께 취직되었다. 네브래스카 수도 링컨에서 공무원 부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중 미네소타에서 '엔바이로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Isaac Yomtovian을 우연히 만나 사업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엄청난 제의를 받은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는 '안정' 보다는 '모험'을 택하기로 했다. 몇 년 후, 사장이던 아이작이 건강문제로 미네소타를 떠나며 회사 buyout을 제의했다. 그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엔바이로사이언스를 인수하는 모험을 했다.

회사 이름을 EVS, Inc. (Enviroscience)로 바꾸고 회사의 장기적인 방향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풍력 발전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후 태양광 에너지로의 확장을 시도해 성공했다. EVS는 현재 미국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태양광 에너지 중소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뉴저지에 위치한 아마존 유통센터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Red Wing Solar Project (5MW)

미국에서 어려웠던 일과 기억에 남는 추억

회사가 힘들어져 401k 은퇴 연금을 전부 해지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 월급 날짜를 맞춰야 했을 때가 있었다. 아내와 밤새 비디오를 보며 그 불면의 시간을 그냥 일상처럼 살았다. 돈 때문에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복은 돈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네소타 주 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컨트렉터가 손해를 많이 봤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임원들은 이 소송이 건축과 설계를 담당한 EVS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며 불안해했으나, "보험회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더 돈을 쓰면 그뿐이다. Everything will be just fine! Cheer up, guys!" 라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일들과 성취된 일들

1987년 로터리 클럽에 가입한 김권식은 국제 로터리 재단에서 주는 폴 해리스 펠로우 표창을 4번 받았다. '태양을 꿈꾸는' 사업가로 살고 있는 만큼이나 '로터리안'으로서의 활동은 그의 소중한 삶의 일부이다. 그는 로터리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20년 동안 4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의 교환을 도왔다. 이외에 미네소타 지역 한인사회를 위하여 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하여 한인사회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봉사하고 있다.

로터리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에 남다른 애정

김권식 동문은 미네소타의 음악 단체와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후원합니다." 24년 전, 미네소타 대학 음대 김영남 교수가 설립한 '미네소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Chamber Music Society of Minnesota, CMSM)'는 미네소타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찬사를 받는 게스트 아티스트들을 초빙해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좀 더 친근한 실내악의 방식으로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는 첼로의 세계 일인자라 할 수 있는 요요마를 초빙했을 정도로 미네소타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협회가 위기에 처하자 이사장직을 맡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또 다른 음악 단체인 '미네소타 코랄' 이사직을 2012년부터 맡아서 하고 있다. 미네소타 코랄은 1972년에 설립된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수석 코러스이며 미국에서 손꼽히는 합창단 중 하나이다.

삶의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헤밍웨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이다. 그와 그의 아내는 늘 검소하게 살아간다. 가진 것을 모두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스스로 충만해짐을 느낀다. "요즘은 손자 녀석들과 함께 놀 때 참 행복해요. 최근에 아내와 나는 우리가 즐겨 찾는 미네소타 대학 수목원에 얼마를 기부하고 벤치를 하나 받았어요. 나와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그 벤치에서 먼 훗날 손자인 샘과 톰이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와 오래 놀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가족관계 (아내를 만난 사연/자녀 근황 등)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 황성숙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이다. 하숙집 주인댁에서 만난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 깨끗이 다려 입은 교복의 새하얀 카라, 큰 눈망울과 도톰한 입술, 반듯한 서울 말씨, 참 예뻤다. 장인어른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헤어진 그녀를 미국 대학에 유학 원서를 보내려 명동 중앙우체국에 들렀다가 다시 만났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둘을 갈라놓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집안일이나 회사 일을 나는 늘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어요.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은 매일 더 깊어집니다." 김동문은 부인과 사이에 두 아들과 귀여운 손자 둘을 두고 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에 바라는 점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례 등 각 지부의 좋은 활동사례 등을 모아서 타 지부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동창회 주소록 및 정보관리에 있어서 미주 총동창회와 각 지부 간에 긴밀한 정보체제 구축을 통해 타지역 동문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대 후배 동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나는 요즘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를 주목하고 있다. 그가 2016년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 '솔라시티'를 인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일하는 방식이 무척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그의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된 것 같다. 나는 군대 시절 신우학원을 경험한 후부터 그렇게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나는 지치지 않았고, 버틸 수 있었고, 꿈까지 꾸었고,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사랑하는 후배들아, 이제 너희들 차례다!"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것 소개

'사회적 약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높은 도덕성', '친절함과 따뜻함', '미래에 대한 비전',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영' 등이 그의 좌우명이다. 회사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차가운 조직이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은 언제나 옳았다는 경험을 기업가의 길을 꿈꾸는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 EVS는 2017년에 기록적인 매출액 신장을 달성했고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했다. 그는 회사 순수익의 반을 무조건 직원들 보너스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사회사업 재단 'EVS CARES'를 발족하는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의 일환이다.

바람직한 미주 한인사회의 미래상은

사회적으로 먼저 성공한 한인 선배가 후배들에게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기쁨을 얻는 한인사회, 축적된 부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약자에게 선을 베푸는 한인사회, 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성공이 한인사회와 더불어 공동체 관계로 성립되는 한인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인터뷰, 글: Jennifer Lee
편집: 황효숙, 양한승

김은한 (의대 60)
회보 고문

자작나무

Jon Carter Covell (1912~1996) 박사가 한국 문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게된 동기는 그녀가 1978년 하와이 대학을 정년 퇴임한 다음이었다. 1978년 하와이 대학을 정년 퇴임한 다음 날 풀브라이트 연구기금을 받은 경력 교수 자격으로 한국에 올 때는 6개월 정도 체류하게 될 것을 예상했었다. 그런데 막상 한국 문화 현장에 발을 들여 놓게되자 그동안 그녀가 알아왔던 일본 것과 중국의 미술품들이 한국을 떠나갔거나, 한국인 예술가들의 손에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많은 예술품들이 사실 한국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카터 코벨 박사는 한국 문화 유산을 제자리에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9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것마저도 그녀의 건강 때문에 떠나야 했던 것이다.

1981년 코리아 타임스에 쓴 글 "내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를 시작으로 7권의 책과 1,400편의 글을 집필하였다. 일본 역사가 저지른 가장 큰 거짓말은 가야에서 온 부여족이 왜를 정복한게 아니라 왜가 가야를 정복했다는 거짓말이었다. 일본의 이처럼 수많은 역사 왜곡을 알게된 코벨 박사는 왜곡된 역사를 규명하려고 그의 마지막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배워온 한국, 중국, 일본의 예술사 전반에 걸친 재성찰의 기회를 한국이 동남아 문화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존 카터 코벨은 Oberlin 대학에서 함께 일본사를 배운 Edwin Reischaer가 한국 미술을 두고 "중국 문화의 변방 아류"라고 한 말이 그릇된 시각에서 나온 것임을 간파하고 이를 공박하는 장문의 편지를 쓴 적도 있었다. 그는 거의 10여년에 걸쳐 한국에 체류하며 "부여족과 삼국시대" "한국무속"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가 만들어낸 저서가 "한국 문화 유산"이었다.

한국 무속에서 아주 중요한 자작나무는 5세기에 이르러 아름다운 신라 금관으로 만개하였고 형상화된 우주목은 바로 자작나무 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한국 무속의 풍습에서 전승된 자작나무의 흔적이 굿에 남아있다는 논거를 전개한 사람이 바로 카터 박사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작 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개마고원이 유일하였다. 함경도 개마고원 사람들은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칠성판에 눕히고는 자작나무 껍질로 싸서 매장하였다. 시베리아 무속에서 샤먼이 하늘 높이 있는 신령과 대화하는데 자작나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시신이 신령의 땅으로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자작나무 껍질로 싼 것이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고 한다. 자작나무는 알타이 민족이 신성시하던 나무로 우리 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지켜온 민족의 나무였던 것이다.

<천마도>

1973년 경주 대릉원 천마총 발굴당시 말안장 양쪽에 달아 느려 뜨린 말다래 (장니)가 자작나무 껍질을 합판처럼 결을 엇갈리게 겹쳐서 꾀매 만든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는 이 자작나무 껍질이 무려 1,500년의 긴 세월을 썩지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자작나무는 신라 국내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다.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틀림없이 북방에서 구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장니의 표면 둘레에는 너비 10cm 범위 안에 흑색, 주황, 백색으로 채색한 인동당초 무늬를 그려놓고 중앙에는 하늘을 나는 백마를 그려놓고 있다. 백화수피 채화판은 6장의 선형판을 연결시켜 각판에 서조도를 그렸고 기마인물도 채화판은 8장으로 각 판에 기마인물을 그렸다. 참고로 부여하지만 천마총의 천마도 백마였고,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 역시 백마로 시작하였다. 감숙성 정가갑 5호 고분 벽화도 백마였다.

바이칼 지역에는 집집마다 천마도를 그려놓고 있는데 모두가 백마로 일관하고 있다. 카자크스탄의 "카자크"는 백마라는 뜻인데 그대로 나라 이름이 되 버렸다. 알타이에서 백마는 선과 행운을 상징하고 흑마는 악과 불행을 상징한다고 한다. 페르시아 지역 역시 백마는 행운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백마 숭배 사상은 알타이 지역의 보편적인 풍습이 되어왔다.

<팔만대장경>

몽고의 침입을 막으려고 고려 고종 23년(1236)에 착수하여 고종 36년 (1251)에 완성하였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국보로 지정되었다. 대장경판은 일부만 자작나무로 제작되었다. 일본 승려들은 한국에서 대장경 영인본이나 대장경 판을 얻어가려고 애를 써왔었다. 고려때부터 일본인들은 대장경 사본 한 질을 구하려고 20여 차례 걸쳐 시도해 왔었다. 그들은 여러 대장경 중에서 가장 탁월한 내용에 정확하게 판각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919년 한일 합방이 되자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은 조선에서 첫번째 식민 작업으로 고려 대장경을 통째로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었다. 우리에게는 천만번 다행한 일이었다.

<자작 나무 이름은 영어로 Birch Tree라고 부른다>

-개마고원에서는 봇나무로 부르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신라를 백목(白木)이라고 쓰고 시라기로 발음했다. 이는 일본사람들이 자작나무와 신라를 똑같은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작 나무를 태울 때는 자작자작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
- 나무에 눈썹모양, 여덟팔자 모양의 지흔 (나뭇가지 흔적)을 볼 수 있다.
- 부패를 막고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하다.
- 껍질을 벗겨내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였다.

결혼식을 가리켜 화촉(樺燭)을 밝힌다고 하는데 자작나무 껍질을 말아서 태운다는 뜻이라고 한다. 자작 나무가 타들어 가면서 내는 자작자작하는 소리와 그윽한 향기가 어울려져 신랑신부에게 행운의 축복을 선사해 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작나무가 없어 부득이 밀초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작나무 껍질을 태우는 화촉의 화(樺)자가 촛불을 의미하는 빛날 화(華)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Jon Cater Covell 박사는 오늘날까지 무속신앙에 전승되고 있는 자작나무의 흔적을 북방 시베리아 종족에 대한 집단 기억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 한민족의 먼조상들이 시베리아 초원을 가로질러 남쪽의 한반도로 이주했을 때 우주수를 숭배하던 자작나무에 대한 집단 기억이 오늘날 몽고나 브리아트 민족들의 풍습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솟대, 당목, 신목에 성황당이 있는 것처럼 몽고, 바이칼 지역에도 솟대, 당목, 신목이 있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어와가 있다. 그들은 자작나무 껍질을 태워 향을 사르고 보드카나 쌀을 뿌려 고수레를 들인다. 먼길을 떠날 때는 서낭당에 증표를 남기고 길을 떠나는 자가 나무를 헝겁으로 치장하거나 돌무더기를 쌓아 소원을 빌고 자연에 감사를 드린다. 제의에 쓰인 음식을 고수레로 다시 대지에 감사를 전한다. 기도의 중심에는 천신과 지신이 있고 자작나무가 있다. 브리아트 샤먼의 집 한가운데에는 "뚜르게"라고 부르는 자작나무 신목이 가운데가 뻥뚤린 지붕위로 솟아있다. 그리고는 샤먼이 신목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몽골이나 바이칼 호반에서 자작나무는 그들 무속의 성수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이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기도처, 제사처 근처에는 어김없이 자작나무가 있기 마련이라고 한다. 무당이 매개자가 되어 초월적 세계로 가는 우주목이 바로 자작나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굿에 자작나무가 등장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작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워 흰종이를 오려만든 지화를 무구(巫具)로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바이칼의"바이"라는 말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샤먼을 지칭해 주는 말이고 "칼"은 골짜기나 고향을 의미한다. 합쳐서 "신들의 고향"이라는 말이 된다. 사람들은 신들의 본향이 바이칼 알혼섬의 부르한 바위를 추앙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들의 일부가 한반도로 이주하여 정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백두산을 불함산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몽골어로 부르한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바이칼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의 중심에 자작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심청전, 콩쥐팥쥐, 백조와 사냥꾼, 아바이 게세르 등 끝이 없다. 아바이는 함경도에서 아버지나 어르신 이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브리아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형제였던 것이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T: 978-835-0100

정운찬 (상대 66)

사회 작동 원리로서의 동반성장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간 저성장과 양극화로 시달려 왔다. 성장률은 2%대에서 헤매며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분배는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경제 전체 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상위 10% 사람들이 47%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 내년도 성장률도 2.6%를 넘기어려워 보인다. 소득분배도 악화되면 되었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동반성장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관건은 설비투자에 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투자가 부진했다.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대상이 부족하다. 연구·개발(R&D) 지출이 많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개발을 위한 지출일 뿐, 본연의 연구는 부족해서 핵심·첨단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개발에서 연구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심각한데 말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비록 최고급기술은 아닐지 몰라도 투자할 데는 많은데 돈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증가, 고용증가, 소득증가, 소비증가, 저성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과 협력하는 대기업도 활발해질 수 있다(분수효과). 또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은 88% 이상을 맡고 있으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방안은 이익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 증가 등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이데올로기 싸움이 한창이다.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들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익공유를 격렬히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애덤 스미스를 떠올린다. 왜곡된 스미스가 아니라 진짜 스미스 말이다.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비롯하여 정책·제도·법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중심적인 작동원리가 있다.

자본주의사회 작동원리의 핵심은 애덤 스미스에서 찾을 수 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각 경제주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생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돼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알며, 자신의 이익만을 좇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왜곡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진정한 모습은 <도덕 감정론>에 나타나 있다. 그는 경제와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려(賢慮)'의 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의(定義)'의 덕과 '인혜(仁惠)'의 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애덤 스미스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한 자유를 제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가 독점이나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 공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 했다. 인혜의 덕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스미스는 정의가 경제사회의 기둥이며 인혜는 그 지붕이라고 보았다.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붕이 부실하면 세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과 '공정한 관찰자로서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정의와 인혜에 기초한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하지 않도록,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경제 질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조정과 통제) 원리가 하나의 토대로 기능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작동원리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애덤 스미스 시대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국가로 확대한 케인스적 자본주의를 거쳐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애덤 스미스가 정립한 자본주의의 두 가지 사회 작동원리 가운데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를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관찰자'의 덕목을 상실하고 '자유로운 경쟁'만이 남은 인간은 오직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는 이러한 욕망 실현의 장소와 대상에 불과하다.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란 명분으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인간사회에 관철되면서 오직 자본의 이윤 추구만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결정할 뿐이다. 그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바로 여기에 동반성장이 필요하게 된다. 동반성장은 개개인을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다. 그래서 개인이 구현할 수 있는 행복과 자유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구현된 행복과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제도·법·정책이 만들어지고 구현될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을 증진하는 동반성장 사회로 갈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향해 자유무역 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렇게 자유무역을 외치던 미국이 세계를 향해 국제수지 적자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맹목적 자유주의는 갔다. 이제 남은 것은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뿐이다. 대·중소기업 간,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그리고 국가 간 동반성장만이 살길이다.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미국경제 2019년 전망>

경기침체냐 저성장이냐?

미국경제는 작년 후반부터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2019년 경제 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원인은 (1) 트럼프 부양 정책 효력의 쇠퇴, (2)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 (3) 주식시장의 변동, (4) 중국 및 유럽연합 경제의 저성장, (5)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서 국민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부정적인 원인이 가져

미국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이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 가치가 무려 15%나 떨어졌으며, 증권투자의 안전망 확산을 보여주는 10년과 2년 미국체권의 일드편차가 0 비율에 가까운 통계는 증권시장의 변동과 불안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 증권시장의 변동을 부축이고 있는 것은 펙트 셋트 연구기관의 예측이 S&P 500 회사들의 평균 수익이 9월에 10.4%이었던 것이 최근 7.9%로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특히 애플의 4/4분기 수익이 10%로 크게 떨어질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2019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하여 2가지의 예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하나의 예측은 경기침체(Recession)를

결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다른 하나의 예측은 단순히 저성장(Slow Growth)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창되고 있다."

올 2019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하여 2가지의 예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하나의 예측은 경기침체(Recession)를 결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둘의 예측은 단순히 저성장(Slow Growth)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창되고 있다.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주장은 주식시장의 변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뉴욕 증권시장이 2018년 11월말부터 2019년 1월 초까지 엄청난 변동을 보여주고 있어서 2019년 새해에 미국 경제가 2008~2009년과 같은 경기침체 (Recession)에 몰입하지 아니할까 하는 경제 전망이 널리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주식사장의 역사적인 전망을 내용으로 하는 모델을 개발한 J. P. Morgan의 경제학자들은 2019년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닥쳐 올 확율이 91%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기침체란 GDP가 연속해서 2분기동안 마이나스 성장을 하는 경제 현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경제가 2019년에 2분기 연속해서 성장하지 않게 된다는 예측이다. 2019년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주장은 2가지 침체 원인을 제창하고 있다.

첫째 경기침체의 원인은 2019년에는 주식시장의 폭락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어 소비와 투자를 오그라들게 되고 GDP의 성장을 축소하게에 이르기 때문이다.

소비는 GDP의 68%를 자지하고 있으며 투자는 GDP의 18%를 점하고 있으므로 소비와 투자의 축소는 GDP의 성장을 크게 위축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2019년에는 국민경제의 재정시장이 협착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재정시장의 협착은 2가지 연방준비은행의 화폐정책전망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전망은 작년 12월 19일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2.50%까지 올리었고 금년에도 몇 차래 인상할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둘의 전망은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정책 (양적 완화의 축소)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자율의 인상과 대차대조표의 축소는 바로 국민경제의 재정시장을 협착하기에 이르게 되고 바로 경기침체를 부축이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게 된다.

미국경제가 2019년에 주식시장의 변동으로 경기침체에 이르게 된다는 전망에 반하여 2018년에서와 같이 3% PLUS의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1.7% 에서 2.6%의 저성장 (Low Growth)은 이룰 것이라는 저성장 예측이 제창되고 있다. 자동차 판매, 건축허가, 실업율등을 바타으로 모델을 세워 경제예측을 하는 J. P. Morgan 경제학자들은 2019년에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확율은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은 2가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의 경제저성장의 가능성은 미국경제가 2018년 3% 이상의 성장율을 보여 왔던 미국 여러가지 분야에서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여 주고 있지만 소비자신뢰지수가 아직도 10년 최고치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제상황 가운데에도 GDP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에 대한 신뢰가 10년의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음이 마이나스의 경제성장을 막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의 경제저성장의 가능성은 경기침체의 상황가운데에서도 노동시장이 매우 강력하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업율이 2018년에 4%이하로 노동시장이 크게 강력하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막아 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국내적으로 경기부양의 쇠퇴와 재정시장의 협착,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무역전쟁, 등등으로 2018년과 같은 경제성장을 2019년에는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들이 제창되고 있다.

그러한 2019년 미국경제 예측 가운데, 증권시장의 심각한 변동을 바탕으로 경기침체를 전망하는 예측과 미국경제에 들이 닥치고 있는 부정적인 원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현황을 마탕으로 경기침체 보다는 경제의 저성장을 전망하는 예측이 상호 맞서고 있는 현황이다. 어떠한 예측이 적중하게 될지는 증권시장의 움직임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최용완 (공대 57)

한국 사람의 얼

인류는 지구상의 동물 중에 제일 늦게 태어난 막내둥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는 문자로 기록된 자료를 근거하여 설명되었기에 근시적인 학문이었다. 이제는 정보시대를 맞아 천문학, 지질학, 고고학, 인류혈연유전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폭넓고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현존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갖고 진실을 이해하여 편견이나 착각을 교정함은 정보시대를 맞은 지식인의 임무이다. 혈연학자들은 현대 인류가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해 뜨는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6만 년 전에 동남아세아에 이르렀고 5만 년 전에 동아세아에 이르렀다고 2008년 7월에 미국의 과학 잡지(SCIENTIFIC AMERICAN)에 발표했다. 혈연학자들이 인류의 연속성을 하나의 근원에서 찾아내어 그동안 많은 의문과 추측을 하나로 정리하였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을 따지고 보면 전부 조상이 하나라는 것이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의 문명과 문화도 모두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세아 지역에서 시작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지질학자들은 10만년 전부터 2만 5천년 전까지 유럽과 아세아대륙 북부와 북미 대륙 북부는 빙하기였다고 설명하고 동남아세아 인도네시아 섬들은 하나의 대륙이었다고 설명한다. 유럽이나 서남아세아는 인류가 정착생활 할 수 있는 기후환경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6만 년 전에 동남아세아에 이른 현대 인류는 풍부한 음식과 따듯한 기후로 정착된 부락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부락과 부락 사이에 필요한 사회적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언어학자들은 세계 모든 언어의 뿌리가 동남아세아에 있다고 설명한다. 음식이 여유로운 바닷길 따라 북쪽으로 이주해온 현대인류는 5만년 전에 한반도에 이르러 사계절을 맞이하였다. 무서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음식과 땔감을 준비하는 농사짓기를 시작하였다.

현대 인류의 농업이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진 질그릇들이 한반도의 일만 년 전 생활유적에서 발굴되며 쌀과 곡식의 유적이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일찍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서남아세아에 한반도 문화와 비슷한 사마리안(Sumer)토기는 5천년 이후에 발굴된다.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아세아 대륙을 횡단하여 동유럽에까지 이른다. 농경생활에서 작은 못과 큰 저수지를 파낸 흙으로 작은 산을 지었다. 봉토를 짓고 그 위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한반도의 봉토문화는 북미대륙에 전해지고 오대호와 미시시피강변에 수천개의 봉토유적을 남기었다.

농사짓는 마을은 한반도의 호남지역에서 고인돌을 세워 마을 지도자의 묘를 세웠다. 지난 2000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은 형식의 다양성으로 보아 고인돌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큰 바위를 멀리서 끌어와 묘를 짓는 마을은 겨울을 이겨내고 북방으로 이주해 들어가서 한반도와 그 주위에 4만 여곳에 고인돌유적을 남기었다. 아프리카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원래의 바닷길 따라 수만년 동안에 서남아세아와 서유럽까지 또 다른 4만여 곳의 고인돌유적을 남기었다. 2만년 이전에 유럽의 빙하기에 이주해 들어가서 프랑스와 스페인 해변에 한반도의 소와 만주지역의 말을 해변 동굴에 그려놓았고 2천 5백년 전에 영국 런든 외곽에 원형배치 스톤헨즈 고인돌을 남기었다. 인류가 태초에 아프리카의 한 가족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려 나온 것처럼 현대 인류의 문명과 문화도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분포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지역의 석탄은 흙처럼 흔하였기에 농사짓는 고인돌마을은 질그릇을 만드는 석탄불에서 금속문명이 시작하였다. 석탄불에 질그릇을 만들다가 금속을 녹여내어 손칼을 만들고 옥돌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금속무기, 도구, 장식은 인류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인류문명이 석기시대에서 금속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이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시작하였다. 멀리서 바위를 끌어와서 고인돌을 세우다 적석총을 쌓아올렸고 적석총의 바위를 다듬어 피라미드 짓는 문화가 시작하였다. 요하지역 홍산문화(ca. 4700-2900)의 층단식 석조 피라미드는 이집트보다 2000년을 앞섰다. 요하지역 홍산문화는 바닷길 따라 이집트 나일강에 이르고 흑인과 아랍인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집트문화가 나타났다. 동아세아의 금속문화는 지중해의 금속문화보다 3,000년을 앞섰다.

한반도의 묘지는 동그란 흙무덤이다. 동그란 흙무덤은 동인도 갠지스 강 문화에 이어져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의 무덤이 동그랗다. 기원전 6세기에 불교가 시작하고 그리스의 왕들이 중국과 인도를 찾아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아세아의 종교와 문화를 배워가서 지중해 종교와 문화가 시작하게 되었음은 중국과 인도의 불교 역사기록에 있지만 유럽의 학자들은 백인들의 자존심을 우려하여 그들이 저작한 책에서 이러한 사실을 거론하지 않는다. 그리스 문화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시작하였다.

요하지역의 유목생활은 말과 개를 가축으로 길렀다. 농사짓는 마을에 외바퀴 수레는 소가 끄는 달구지가 되었다가 쇠바퀴를 말이 끌면서 거마(chariot)는 홍산문화에서 발달하였다. 그 후에 거마(chariot)는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전해지고 동아세아 중원을 차지하는 거마전쟁이 유행하였다. 1만년 전부터 남쪽에서 이주해온 중화민족이 동이족과 혼합아여 황하문명을 이루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첫 제국을 세운 진시황제의 기원전 2세기에 훈족의 세력과 계속된 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만리장성 건설이 시작하였다. 훈족의 기마군단은 티베트와 서역을 지나 지중해에 이르는 비단길(silk road)을 개척하였다. 서로마를 정복하고 동로마를 세워 4년 동안 다스리며 동아세아 문화를 유럽에 전했다. 훈족의 기마민족 이동은 세계역사의 가장 큰 민족이동을 일으키는 충격을 거두었다. 훈족이 열어놓은 비단길은 11세기에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이 유라시아를 통일하는 발판이 되었다. 마르코폴로의 여행기로 유럽민족을 암흑기에서 일깨웠다. 유럽의 세계침략이 시작되어 동아세아 원주민의 영토인 북남미 대륙을 빼앗아 오늘의 세계지도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한반도에서 시작한 동아세아 역사는 한결같이 만주훈족, 몽골로 성장해오는 동안 동이훈족 역사는 하(夏 Xia)나라, 상(商 Shang)나라로 이어져서 중국역사가 시작되었다. 동아세아의 문명은 세계를 통일한 몽골제국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át□n, 영어: Plato)는 지중해 문명이 돌연변이처럼 나타났다 사라짐을 보고 아틀란티스(Atlantis; 세계 모든 문명의 근원)에서 전해온 문명이라고 이야기했다. 돌아보면 아틀란티스는 곧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세아였음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동아세아에서 시작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중심은 지난 5만년 동안에 서쪽으로 움직여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유럽과 미국을 지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다시 동아세로 돌아오고 있음이 오늘에 이르는 세계역사의 진실이다.

동창회보 독자 자녀 분 중에 역사 공부에 흥미있는
대학원생이나 졸업하신 분으로
한국인 영어를 미국인 영어로 Editing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200 page 역사 수필 책 내용입니다.

최용완 Bryan Choi:
email: bryanchoi@cox.net / cell: 949-721-1356

정재현 (공대)

워싱턴주 (시에틀)
2018 10월 SNU Forum

스마트 및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과 마이크로/나노 기술

마이크로/나노 기술의 설명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이크로/나노 미터 길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마이크로 기술은 보통 1마이크로 미터(μm; micrometer; 10-6 meter) 에서 100마이크로 미터사이의 형태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나노 기술은 1 나노미터(nm; nanometer; 10-9 meter) 에서1 마이크로 미터까지의 형상을 가공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우리가 인지 하는 1미터와1나노 미터 사이에는, 십억 배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의 시야에서 길이의 차이를 체감하기 쉽지않다. 참고된 그림에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을 크기 차이에 따라서 보여준다. 보통 인간의 크기를 1미터로 보면 벌과 같은 곤충들이 1센티미터정도이다. 인간의 머리카락 지름이 100 마이크로 미터이고, 인간의 세포가 10 마이크로 미터정도 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있는 크기가 70 마이크로 미터 정도이니, 머리카락은 볼수 있어도 사람세포를 볼 수는 없다.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면 1마이크로 미터 정도까지 볼수 있는데, 결핵이나 대장균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지름이 0.5 마이크로 미터이고, 길이가 최대 몇 마이크로 미터 정도 이므로, 균에 의한 감염은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DNA나 RNA를 가지고 있는데, 크기가 100 나노미터 정도 된다. 균과 바이러스의 크기 차이는 대략 열배정도이지만, 바이러스를 보려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한다. 크기를 더 내려가면, 단백질의 크기가 10나노미터 이다. 1나노미터 부근에는 인간의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개별유전자의 길이가 0.3 나노미터이다. 인간의 전체 유전자가 30억 (3x109)개 정도 이므로, 유전자 길이는 일미터 정도이다. 1나노미터아래로 내려가면 원자의 크기가 된다. 현재 나노 가공 기술 중에, 주사 탐침 현미경이 (scanning probe microscopy) 0.1나노 미터의 가공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작업속도가 워낙 느리기때문에 연구용으로만 쓰이고 있다. 요약하면, 마이크로 나노 크기의 물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단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 삶의 기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의 크기를 보여주는 예 (http://micro.magnet.fsu.edu/cells/index.html)

마이크로 기술은 1970년대에 생산되기 시작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활용하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제일 처음 개발된것이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압력센서이고, 보통 십년에서 이십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센서, 액츄에이터, 고주파 스위치, 생화학 센서, 광학소자 등이 개발되었다. 다른 기술과 비교하면 마이크로 기술의 장점은 센서를 대량 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마이크로 기술에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 기술은 한 배치에 적어도 몇천개의 센서를 제작할 수 있어 생산가격을 열배에서 백배이상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전에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천불 이상이었는데, 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한 가속도 센서가 생산되면서 가격은 몇불로 낮아졌다. 가격이 낮아짐에따라,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속도 센서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것이다. 그러면 마이크로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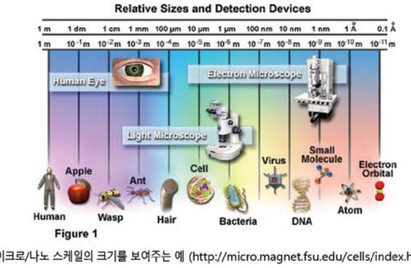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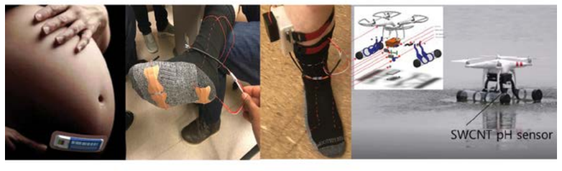


Figure 1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의 크기를 보여주는 예 (http://micro.magnet.fsu.edu/cells/index.html)

마이크로 기술의 활용예: 화재시 가스를 검출하는 센서,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방울을 분출하는 카트리지,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는 시점을 알려주는 가속도 센서 (출처: https://en.wikipedia.org)



웨어러블 기기의 예: 임산부의 건강을 검사하는 센서-배에서 복압,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한다. 워싱턴 대학의 기계공학과 학부생들이 개발한 발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 세개의 종이로 만든 센서가 발바닥의 압력을 측정한다. 워싱턴 호수의 pH 를 측정하기 위해, 동대학의 학부생들이 개발한 드론

마이크로 기술의 활용예: 화재시 가스를 검출하는 센서,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방울을 분출하는 카트리지,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는 시점을 알려주는 가속도 센서 (출처: https://en.wikipedia.org)

현재, 마이크로 기술은 성숙단계를 지나, 스마트 기기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폰이다. 가속도계가 장착되어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주변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GPS가 장착되어 위치를 파악하고, 자이로스콥이 장착되어 회전을 측정할 수 있다. 스크린에 투명하게 프린트된 전극들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발광다이오드와 광센서를 이용하여, 맥박과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마이크로 기술의 한계는 스위치가 마이크로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져 있다. 액츄에이터의 경우, 가장 좋은 예가 잉크젯 프린터이다. 프린터의 핵심 부품인 잉크 카트리지가 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어 있다. 영화를 볼때 쓰는 빔 프로젝터가 마이크로 미러를 이용하여 작동된다. 최근들어 자동차의 연료효율을 높이고, 안전수준을 높이며, 운전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이 차량에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의 각도를 측정하고, 차량의 미끄러짐을 줄이기 위해 바퀴의 회전을 측정하며, 타이어의 압력을 측정해 운전자에 알려준다. 기어의 위치 및 속도를 측정하고 비가 내리는지 측정하여 와이퍼를 움직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감지를 한다. 지금 상용화된 첨단 자동차들은 백개가 훨씬 넘는 센서들이 장착되어,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다. 생화학 센서는 주로 실리콘소자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생산 장비와 관련 시설이 너무 비싸, 작은 규모의 회사는 접근하기 힘들었다. 또한 실리콘 소자는 단단하고 잘 휘어지지 않으므로 인간 몸에 착용하기 쉽지 않았다. 착용감이 좋은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기위해, 다양한 종류의 나노 기술이활용되고 있다.

나노기술의 발전은 전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 등의 이미징 기술들의 발전과 함께, 1990년대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지분야를 제외하면,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상용화된 기술은 대부분 재료분야의 혁신이다. 나노재료의 넓은 표면적을 이용하여 단열효과를 높이거나, 접합성을 높여 높은 탄성 및 강도의 재료를 만들 수 있다. 나노재료를 이용하여 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친수성 혹은 소수성 코팅 재료를 만드는 등의 재료혁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진단 및 치료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분야가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이다.

현재 상용화된 스마트 와치 (smart watch)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비교하면, 미래의 웨어러블 기기는 다양한 기능과 함께 몸에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나노소자를 이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새로운 요구조건은, 사람의 피부같이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고, 바이오컴패터블 (biocompatible) 하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기술보다는, 프린팅이나 스탬핑 등을 이용한 생산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딱딱한 실리콘 웨이터 대신, 얇은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이용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참조). 이런 기술들은 기존의 비싼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연구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예: 임산부의 건강을 검사하는 센서-배에서 복압,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한다. 워싱턴 대학의 기계공학과 학부생들이 개발한, 발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 세개의 종이로 만든 센서가 발바닥의 압력을 측정한다. 와싱턴 호수의 pH 를 측정하기 위해, 동대학의 학부생들이 개발한 드론.

예를 들어, 나노 재료를 이용한 웨어러블 기기는 땀의 이온 농도, 당의 농도, 나트륨 등의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Nature, 529, 510, 2016). 기존의 크고 복잡한 장비를 빌려서,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던 임상시험을 집이나 현장에서 할 수있게 되었다. 센서가 있는 필름을 몸에 붙이면, 각종 의학변수를 측정 할 수있다. 필름 형태로 된 압력센서를 발바닥에 붙이면 압력의 변화에 따른 걸음 걸이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BMC Geriatrics, 5, 1471, 2005). 또한 피부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패치를 붙이면, 필요시 약을 투약할 수도 있다 (Nature Communications, 6, 6566, 2015).

이와 같은 얇은 필름 형태의 센서들을 이용하면, 예전에는 경험에 의존하던 것들을 수치화하여 각종 질병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환자 몸에서의 당 및 이온 변화를 상시로 측정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 걸음걸이의 변화를 측정하여 뇌의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몸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물질들을 분석하여 몸의 질병을 진단하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고 뇌의 질병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들이, 상용화 과정을 통하여 각 가정집에 보급되면, 각종 질병의 기본 진단들이 가정에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몸의 작은 변화들을 초기에 진단하여 암예방이나 각종 질병을 분석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의 연구 개발은, 필름 형태의 전지나 통신기술 칩들과 같이 개발 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인간 건강의 한축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 이다.

요약하면, 마이크로 기술이 인간생활의 주변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반면, 나노기술은 인간 몸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각종 질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미래의 웨어러블 기기들은 착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혁택을 볼 수 있는 기기로서 개발 될 것이다.

홍청일 (약대 57)

약에 대한 올바른 상식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약을 복용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여러가지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며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Vitamin과 그외 건강식품을 복용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수효가 많아지게 된다. 일반사람들은 약을 이것 저것 많이 복용하면 몸에 좋은 줄 알고 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우리 몸에 효과를 내려면 우선 물에 녹아야 한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흡수되는 물질을 곧 간에서 해독되어 체외로 배설시키며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 흡수되도록 각 물질의 수용성이 다르다. 물에 잘 녹지않는 물질 (약)은 아무리 많이 섭취하여도 극히 적은 양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배설되고 만다. 그러나 난용성 물질이라도 물에 녹아 장기에서 흡수되도록 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약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되어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약의 독성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약은 인체에 그양에 따라 유익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약의 독성을 나타내는 양과 효과를 나타내는 양의 balance에서 그 양보다 작은 양을 우리가 취하여 독성을 주리면서 효과를 보게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은 과용하면 독성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약 (Drug)의 어원은 프랑스어인 Drogue (마른 풀)에서 유래된 것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또는 생물 물질로 볼 수 있다. 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식물에서 추출되었고, 항생제는 곰팡이에 의해 만들어 지고 현대 많은 약은 화학합성에 의해 만들어 진다. 그리고 vaccine 및 여러종류의 생물학제제는 동물이나 사람의 세포배양에서 만들어 진다, 약의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의약품이란 질병에 걸린 인체를 정상화 시켜주는 것으로 사람 또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약은 사람 몸 속에서 흡수/분포/대사/배설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역할을 마친다.

약의 투여경로는 첫째 경구용약으로 입을 통해 먹는 약으로 캅셀제, 정제 등이 있다. 둘째 경피용약으로 피부나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약으로 붙이는 patch제나 바르는 연고제, 크림제, gel 제 등이 있다. 셋째는 주사제로 피부, 근육, 혈관을 통해 흡수되는 약을 의미한다. 넷째는 경비제 (inhalator)로 코의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좌제 (suppository)로 항문을 통해 흡수되는 약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약은 경구용이나 소화기관에서 분해되는 약물이나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하여 주사제로 투여하지만 주사 맞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고 허가된 병원이나 clinic, 약국에서만 투여받을 수 있다.

입으로 투여된 약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며 소장에서 흡수된 약 및 점막이나 주사제로 투여된 약은 혈액을 수송수단으로 하여 혈관을 따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곳을 찾아 우리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약효를 발휘한다. 그러나 약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물질 (독) 이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으로서 필요 없는 물질은 분해하고, 필요한 물질은 제조하는 역할을 한다. 약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간에서 산화, 환원, 가수분해 등의 작용을 받아 그 형태가 변화되는 대사과정을 거친다. 간에서 대사된 약은 주로 콩팥에서 걸러져 소변을 통해 배설되거나 소화기 계통을 따라가 대변과 함께 배설된다. 이외에 호흡을 통해 배설되거나 젖, 땀, 침, 눈물, 기관지 분비선을 통해 배설된다. 주사제로 투여된 약의 효과는 혈액순환에 의해 곧 볼 수 있으나 입으로 먹은 약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중농도가 최고에 달하기까지 약 2시간이 걸리며, 모든 투여된 약은 거의 24시간내에 몸밖으로 배설된다. 그러므로 약효를 내는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에 반복하여 투여를 해야 한다. 따라서 1일 1회 투여해도 약의 효과를 내는 혈중농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소위 서방형 제제 (sustained release formulation)가 나오게 되었다.

약은 약의 복용법 (복용시간, 복용방법)에 따라 복용할 것이며 (의사, 약사의 지시를 따를 것) 식전, 식후, 취침 전에 복용하든가 또는 음식물에 의한 흡수저하 및 상호 작용을 일으켜 약효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grapefruit와 antihistamine, 혈압강하제, 위산억제제를 동시에 섭취하면 이 약들의 비정상적인 대사를 일으켜 약의 혈중농도가 높아진다. 또 alcohol이 간에 해를 끼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alcohol과 aspirin, acetaminophen, ibuprofen같은 소염제 (NSAID)를 같이 복용하면 심한 위출혈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는 생명의 위험도 일으키게 된다.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할 때 약과 약 상호간의 반응으로 약효감소 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약의 복용법을 잘 읽어 보고 또는 약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약의 남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약의 내성이 생긴다. 우리가 감기 몸살에 흔히 복용하는 acetaminophen (Tylenol)의 남용은 심한 간 독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약의 부작용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일반 환자들이 처방약에 적혀있는 사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놀랍게도 통계에의하면 5병중 4명 (80%)이 처방약의 복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거나 또는 복용을 중간에 중지해 버려서 그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약만 허비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병의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중간에 약복용을 끝내 버린다. 항생제인 경우는 아직 병을 일으킨 세균이 살아남아 있게되고 또한 약의 내성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치료제가 아닌 혈압강하제, 고지혈증약, insulin sensitizer 등은 평생 복용해야 하므로 중간에 끊어서는 않된다.

그리고 마치 술 (alcohol)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중에 약 50%만 총 환자에게 듣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혈압강하제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해야 한다. 즉 사람마다 그 유전인자가 다르므로 그병 특히 암을 일으키는 유전인자의 mutation에 따라 그것을 표적으로 한 표적치료제 (Targeted Therapy) 또는 Precision Medicine으로 환자를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효과있게 치료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많은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Cancer Immunotherapy)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미생물이나 암세포를 죽이는 항생제나 항암제의 효과가 없어지는 곧 내성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이 현상은 미생물이나 암세포가 자기들의 살 방도를 찾아 그 표적을 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약개발을 또 그 변화된 표적에 맞게 하므로 2세대, 3세대 약들이 나오게 된다. 결국은 끝없는 싸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 예가 이미 많은 약이 있는데도 신약의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그 외에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건강증진과 수명연장의 근본적인 것과 기존 약이 지니는 약효개선 및 부작용 정복이며 긍극적으로 인류의 생활양식 개선을 통한 질병 없는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이라 하겠다.

신약개발은 기술집약적이고 두뇌집약적인 첨단 미래기술 중에서도 핵심기술분야로서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성공에 따른 위험부담이 매우 높다. 통계적으로 신 물질탐색에서부터 신약이 탄생하기까지의 성공확률은 1/4,000 - 1/10,000로 낮고 개발기간은 평균 10-15 년, 개발비용은 $1 billion (1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등 시간, 비용, 성공 확률 면에서 위험부담이 큰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개발이 성공될 경우 매출액대비 20-30%의 이윤을 창출하는 등 그 부가가치는 매우 막대하다. 세계 100대 의약품을 기준으로 1개품목당 년 평균 매출액은 $800 million (8억달러)에 서 $1 billion (1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순이익은 $160 million (1억6천만달러)에 서 $300 million (3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특허기간은 물질발견으로부터 20년이므로 15년간의 개발기간을 제하면 불과 5년이내에 이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신약의 약가가 비싼 이유이다.

그러므로 특허가 만료된 신약은 똑 같은 약이면서 약값이 싼 Generic Drug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미국은 1984년 Hatch-Waxman Act (The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에 의해서 Generic Drugs을 승인하게 되었다. Generic Drug은 original Innovative Drug과 같은 약효물질, 제형, 용량, 순도, 투여방법은 물론 FDA가 승인한 시설과 설비에서 제조하여야하며 Bioequivalent 해야한다. 현재 미국 처방약의 80%가 Generic Drugs으로 처방되고 있으며 1년에 $8~10 billion (80-100억불)을 절약한다고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보고하였다. FDA가 승인한 이상 Original Drugs와 같다는 것을 책임지고 있으며 계속하여 독성 등을 monitoring하고 있다.

끝으로 천연물 (Natural Products)은 다 안전한가? 특히 한국 일반사람들은 소위 organic은 다 안전한 줄로 오해하고 있다. 그식물이 갖고 있는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약들이 천연식물에서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한국은 양약과 한약의 2중 표준을 갖고 있으며 양약은 식약청에 의한 미국FDA와 같은 엄격한 심사를 하는 반면 한약제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약처방의 안정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약의 원료의 성분들이 시기, 장소, 재배방법 등에 따라 일치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양약의 표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별히 간에 좋다고 권해주는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을 되도록 멀리하면 오히려 간에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은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 2005-2007년 간 약의 남용과 간 독성을 조사한 결과 독성간 손상의 원인물질을 중 한약이 가장 많아 40.2%을 차지하고 다음이 상용약 27.2%, 건강기능식품이 13.7%, 민간요법이 10.8%, 그리고 그 외 복합원인이 8.2%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그들의 지시대로 복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좀 과장된 말로 모든 약은 잘못 복용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복용법대로 적절하게 복용해야 하며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약을 될수있는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으나 꼭 필요한 약은 복용법대로 복용하여 자기 건강을 관리해야 하겠다.

약력
1961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68년: Ph.D. in Medicinal Chemistry and Biochemistr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1969-1997년: Cancer Research Scientist,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Buffalo, NY
1982-1997년: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Chemistry, Roswell Park Graduate Divis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Buffalo, NY
1997-2003년: ㈜ 종근당 부사장/종합연구소장
2003-현재 ㈜ 종근당 고문
2002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

이태상 (문리 55)

운명이냐 숙명이냐?

바꿀 수 있는 게 운명이라면 바꿀 수 없는 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전자 (Destiny)가 작은 그림이라면 후자 (Fate)는 큰 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세상에 어떤 종(種)으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떠한 환경에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가가 숙명이라면 이 큰 틀 안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가는 운명이 될 거라는 말이다.

운명(運命)의 한자 운(運) 이 운전할 운이고 숙명(宿命)의 한자 숙(宿)이 잘 숙인 것이 그럴 듯 하다.

이 틀이라는 것도 하나는 사실적이거나 현실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가공적이거나 가상적인 것이 있지 않나. 문학적인 용어로는 논픽션과 픽션이, 컴퓨터 인터넷 용어로는 현실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이 되겠다. 전자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사라면 후자는 종교적이거나 이념적 사상, 문학과 예술 같은 것들 아닐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틀이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조작된 틀이 있다는 얘기다. 전자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후자는 그 틀 안에 갇혀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 틀을 깨고 벗어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그 한 예로 노예 제도라는 틀을 깬 에이브러햄 링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영어로 복권이란 뜻의 로터리(lottery)의 앞글자 '로트 (lot)'는 어떤 한 특정 집단이나 품목 내지 세트, 또는 땅조각 대지, 한 몫을 의미하지만 그 어느 누구의 숙명이나 운명을 뜻하기도 한다. 링컨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여인이든 나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여인이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이 일에 실패하는 것보다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건 없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 투 (#Me Too)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고도 이를 참고 견디면 숙명이 될 것을 용감하게 고발하면 이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또 한 예를 들자면 부모의 생업을 이어받거나 부모가 원하는 직업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숙명을 자초하는 거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든 운명이든 숙명이든 본인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면 우리 링컨이 남긴 또 다른 한두 마디 말 그대로이리라.

"선행을 하면 내 기분이 좋고, 악행을 하면 내 기분이 나쁘다. 이 게 바로 내 종교다." 그리고 "네 미래를 점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미래를 네가 창조하는 것이다."

Fate or Destiny?

If what can be changed is 'destiny', 'fate' must be what cannot be changed. If the destiny is the small picture, the fate must be the big frame. If how you happened to be born into a certain species, time and space, in the environmental setting, with your kind of DNA is your fate, then what picture you draw within the frame must be your destiny.

'運命', the Chinese characters of destiny ('운명' in Korean), '運', the first character of which means 'changeable/moveable'. '宿命', the Chinese characters of fate ('숙명' in Korean), '宿', the first character of which means 'to sleep over/settled'. '命', the same second Chinese character of both, means 'the breath in the throat/the breath of life'.

As for the frame or box we are in,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so separate from each other. One is factual and real and the other is all made-up and unnatural. They are non-fiction and fiction in literary terms, and reality,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n computer terms. If our daily lives are the former, all the other arbitrarily and artificially imposed and manipulated ideological thoughts, religious dogma, arts and literature must be the latter. Like it or not, one has to accept the former as a given. But as to the matter of the latter, one has to decide whether to settle down in the box or get out of the frame, breaking every chain and throwing off all the shackles of slavery.

Let's think of Abraham Lincoln.

Definition of lot in English by Oxford dictionaries is a particular group or set of people or things, an item or set of items, the making of a decision by random selection, especially by a method involving the choice of one from a number of pieces of folded paper, one of which has a concealed mark, a plot of land, or a person's luck, situation, or destiny in life.

Among Lincoln quotes, there's one about 'casting one's lot':
"Whatever woman may cast her lot with mine, should any ever do so, it is my intention to do all in my power to make her happy and contented; and there is nothing I can imagine that would make me more unhappy than to fail in the effort."

As we can see these days, a few courageous ladies are turning their 'fates' into their 'destinies' by joining the current worldwide #Me Too campaign, while the majority of victims are still suffering in the dark, with their fates are being fossilized in caves.

To cite another kind of example, sad to say, some young people choose their careers and even their spouses, dictated by their adulterated parents and societies, instead of carving out their destinies by their own choices.

Anyway, be it the fate or the destiny, if one has to be happy with oneself after all, it behooves us all to ponder what Lincoln had to say:

"When I do good I feel good, when I do bad I feel bad, that's my religion."
And this too: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

서윤석 (의대 62)

신년시

"희망希望이 솟아야할 새해 아침에
찬 비만 소리도 없이 내리네요
둥글고 푸짐하다는 황금 돼지띠해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기원하면서도
앞이 캄캄하여 미래未來를 알 수 없네요

현명賢明하고 용감勇敢하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들 새로 태어납니다
통일統一이 오라고 노래하던 우리
섣불리 통일을 한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둥글고 우직愚直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골白骨들이 산山 속에서 울고 있어요
통일을 한다고 피를 흘리다가 묻힌
그들이 남긴 슬픈 시를 읽어 보세요

용서容恕와 사랑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배우들이 무대舞臺에서 가면假面을 벗으면
풍요豐饒로울 여러분의 마을을 찾아
금수강산錦繡江山을 함께 달릴 거예요

등불이 세상을 고루고루 밝히는 날
다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신앙의 자유, 예술의 자유, 생존의 자유가 오면
삼천리 방방곡곡을 저도 함께 달릴 거예요

2018년 12월 6일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47,347.11
(11/29) 6,511.97

총동창회 보조금

3,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3,000

업소록 광고비

강호석 (상대 81)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일영 (의대 65) 240
김창수 (약대 64) 240
김 폴 (수의 81) 480
남욱현 (경영 84) 480
독고원 (공대 65) 240
박종효 (의대 79) 240
서동영 (사대 60) 480
석창호 (의대 66) 240
신동국 (수의 76) 480
신응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염동해 (농대 74) 240
윤세웅 (의대) 240
이경림 (상대 64) 72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종묘 (간호 69) 480
이준영 (치대 74) 240
정세근 (자연 82) 240
정수만 (의대 66) 240
정정우 (수의 74) 240
정재훈 (공대 64) 480
주기목 (수의 68) 240
지흥민 (수의 61) 24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광고비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DUO Info. (11/6) 400
DUO Info. (12/8) 400
DUO Info. (1/9) 400
DUO Info. (2/8) 400
DUO Info. web (2/23) 500
DUO Info. (4/2) 400
DUO Info. (4/30) 400
DUO Info. (6/11) 400
DUO Info. (9/5) 400
DUO Info. (10/9) 400
DUO Info. (11/14) 400
DUO Info. (12/5) 400
JayoneFood (1/22) 1,800
JayoneFood (11/26) 1,800
KCCnews.net (8/15/18) 200
KCCnews.net (11/5/18) 425
KISS (1/17) 3,000
NY Golf (6/18) 1,000
NY Golf (8/9/18) 1,000
NY Golf (8/31/18) 1,000
SeAh 이병준 1,500
SNUAA, Inc (남가주) 500
SNUAA, Inc (남가주) 700
T. H. & Asso. 1,0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승호 (12/26) 400
김인종 (181105) 700
노명호 (공대 61) 1,0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서울메디칼 (3/15) 1,000
서울메디칼 (12/26) 1,000
손재옥 (가정 77) 500
신응남 (농대 70) 1,200
심완섭 (의대 67) 1,800
한남체인(3/15) 1,000
한남체인(12/23) 1,000

나눔

김창화 (미대 65) 25
손재옥 (가정 77) 500
윤상래 (수의 62) 5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건영 (문리 71) 50
차수만 (약대 71) 200
황선희 (공대 74) 100

모교발전기금

권기현 (사대 53) 1,000
권철수 (의대 68) 100
김시근 (공대 72) 300
심상은 (상대 54) 25
유재환 (상대 67) 125
윤상래 (수의 62) 2,100
윤우용 (공대 63) 1,000
오동환 (의대 75)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강홍 (상대 60) 300
임종식 (의대 51) 1,000
정동구 (공대 57) 500
정태광 (공대 74) 200

브레인 네트웍 후원금

서동영 (사대 60) 200
신응남 (농대 70)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윤상래 (수의 62) 6,000
이병준 (상대 55) 1,000
정창동 (간호 45) 100
한재은 (의대 59) 500

수재민 돕기 후원금

윤상래 (NE) 300
정정욱 (NE) 200
고일석 (NE) 200
김문소 (NE) 100
김연화 (음대 68) 200
신응남 (NY) 200
손재옥 (PA) 1,000
황선희 (PA) 200
합계: 2,400

장학금

김기형 (경영 75) 125
김동훈 (법대 56) 1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현학 (의대 57) 100
박원준 (공대 53) 300
박용걸 (약대 56) 150
백원일 (농대 70) 500
신규영 (공대 64) 100
신응남 (농대 70) 300
심상은 (상대 54) 100
오인환 (문리 63) 650
유재환 (상대 67) 100
윤상래 (수의 62) 5,600
이건일 (의대 62) 125
이원섭 (농대 77) 100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전상욱 (사대 52) 500
전영자 (미대 58) 350
정진수 (공대 56) 425
조형원 (약대 50) 500
최수강 (의대) 100
황현상 (의대 55) 100

지부 분담금 (2018/7~2019/6)

알라스카 200

이헌석 돌기

김현배 (의대 66) 200

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대 64) 200
김 영 (수의 63) 500
김영순 (음대 59) 600
김원탁 (공대 65) 400
김인종 (농대 74) 25
김일영 (의대 65) 200
김재영 (농대 62) 240
김종표 (법대 58) 500
김진형 (문리 55) 1,500
김창신 (사회 75) 100
노명호 (공대 61) 3,000
문석면 (의대 52) 200
민수봉 (상대 55) 25
박인창 (농대 65) 100
박종수 (수의 58) 3,100
방석훈 (농대 55) 200
백옥자 (음대 71) 600
위종민 (공대 64) 200
유재환 (상대 67) 200
유창호 (약대 74) 300
이건일 (의대 62) 300
이명선 (상대 58) 500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4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이영송 (치대 63) 400
이영일 (문리 53) 200
이현찬 (치대 75) 200
임창회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5) 400
전희택 (의대 58) 200
정균희 (의대 66) 200
정동구 (공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270
정희영 (치대 58) 100
조상하 (치대 64) 125
조한원 (의대 57) 10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하선호 (치대 81) 200

북가주

강정수 (문리 62) 125
김윤범 (의대 54) 200
김정희 (음대 56) 200
이성형 (공대 57) 150
한상봉 (수의 67) 240

뉴욕

강에드 (사대 60) 400
곽선섭 (공대 61) 100
곽승용 (의대 65) 200
김명철 (공대 60) 2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두선 (공대 68) 100
박상원 (문리 54) 4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량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윤순 (의대 52) 525
이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행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400
허유선 (가정 83) 10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2,000
김문소 (수의 61) 80
김병국 (공대 71) 65
김선혁 (약대 59) 100
김은한 (의대 60) 1,250
김정환 (공대 52) 200
김제호 (공대 56) 100
송미자 (농대 62) 65
윤상래 (수의 62) 40,8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희규 (공대 69) 200
전신의 25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혜숙 (간호 66) 65
최선희 (문리 69) 200
최홍균 (공대 69) 2,000

라스베가스

윤우용 (공대 65) 5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북텍사스

이석호 (공대 78) 200
최종권 (문리 59) 200

샌디에고

김군빈 (법대 56) 75
박우선 (공대 57) 200
임춘수 (의대 57) 200

시카고

강영국 (수의 67) 200
구행서 (공대 69) 100
김연화 (음대 68) 150
오봉완 (법대 52) 260
이동균 (공대 75) 25
이용락 (공대 48) 1,000
임근식 (문리 56) 500
조형원 (약대 50) 500
최희수 (문리 67) 75
홍혜례 (사대 72) 225

아리조나

박양세 (약대 48) 200
지영환 (의대 59) 200
진명규 (공대 70) 100

오하이오

김동광 (공대 62) 50
성홍완 (수의 75) 200
송용재 (의대 63) 200

워싱턴 DC

강길종 (약대 69) 400
권철수 (의대 68) 200
박용걸 (약대 56) 200
박평일 (농대 69) 600
백 순 (법대 58) 200
서윤석 (의대 62) 300
신구용 (공대 59) 200
신상균 (의대 52) 500
오인환 (문리 63) 200
유영준 (의대 70) 200
이문항 (공대 46) 100
이영묵 (공대 59) 200
이인옥 (68) 25
장효열 (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의생 (수의 60) 200

워싱턴 주

하주홍 (경영 77) 25

조지아

백성식 (약대 58) 75
정량수 (의대 60) 25
주중광 (약대 60) 2,000
허지영 (문리 66) 2,000

필라델피아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 100
서중민 (공대 64) 350
손재옥 (가정 77) 1,000
송영두 (의대 56) 700
신성식 (공대 56)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이성숙 (가정 74) 250
제갈은 (문리 59) 150
전무식 (수의 61) 200
주기목 (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500
조화연 (음대 64) 150
지흥민 (수의 61) 400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전영자 (미대 58) 50

커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600
유시영 (문리 68) 500
200

케롤라이나

한광수 (의대 57) 400

하와이

김승태 (의대 57) 600

하트랜드

오명순 (가정 69) 500
이상강 (의대 70) 10,000
최은관 (상대 64) 500

휴스턴

김옥균 (공대 54) 200
진기주 (상대 60) 500
최영기 (공대 63)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 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3명)

골드 종신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흥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종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용헌 (경원 66)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택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고인)
- * 표: 한번이상 내신 분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남가주
S.CA/NV

강경수 (법대 58)
강동순 (법대 59)
강윤희 (간호 46)
강정훈 (미대 56)
강중경 (공대 48)
강홍제 (상대 53)
고병철 (법대 55)
권기상 (경영 72)
권영달 (문리 50)
권영재 (의대 57)
권처균 (공대 51)
김건진 (문리 62)
김광은 (음대 56)
김동산 (법대 59)
김동석 (음대 64)
김동훈 (법대 56)
김병완 (공대 58)
김상찬 (문리 65)
김석홍 (법대 59)
김선기 (법대 59)
김순자 (치대 57)
김순덕 (간호 61)
김 영 (수의 63)
김영덕 (법대 58)
김영순 (음대 59)
김원경 (약대 59)
김원탁 (공대 65)
김원호 (약대 63)
김옥경 (가정 60)
김은경 (음대 66)
김의신 (의대 60)
김인종 (농대 74)
김일영 (의대 65)*
김정애 (간호 69)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진식 (공대 66)
김진형 (문리 55)
김창무 (음대 53)
김태윤 (법대 53)
김태호 (상대 57)
김현철 (의대 57)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나두섭 (의대 66)
나민주 (음대 65)
나승욱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경호 (문리 59)
문병하 (법대 51)*
문인일 (공대 51)
박대균 (수의 57)
박명근 (상대 63)
박부강 (사대 64)
박우성 (사회 77)
박원준 (공대 53)
박인수 (농대 64)*
박인창 (농대 65)
박임하 (치대 56)
박찬호 (농대 63)*
박창규 (약대 59)*
박창선 (공대 55)
박취서 (약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호현 (의대 52)
박홍근 (공대 64)*
방효신 (약대 56)
변영근 (수의 52)
배동완 (공대 65)
배병옥 (음대 58)
배효식 (문리 52)
백원일 (농대 70)
백옥자 (음대 71)
백혜란 (미대 70)
서동영 (사대 60)
서명희 (농대 67)
서영석 (문리 61)
성주경 (상대 68)
손기용 (의대 55)
손학식 (공대 61)
송성균 (공대 50)
신건호 (법대 53)
신규식 (농대 61)
신동국 (수의 76)
신상화 (공대 58)
신영찬 (의대 63)
신정식 (상대 64)*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양운택 (의대 58)
양찬효 (상대 54)
양태준 (상대 56)
염동해 (농대 74)
오선웅 (의대 63)
오송자 (사대 59)
오양숙 (간호 60)
유덕훈 (상대 48)
유석홍 (상대 61)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윤경민 (법대 55)*
윤석철 (상대 60)
윤용길 (공대 55)
윤희성 (치대 65)*
오송자 (사대 59)
이건영 (문리 71)*
이건일 (의대 62)
이광재 (공대 59)
이근원 (공대 67)
이기재 (사대 52)*
이민정 (의대 83)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5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송희 (간호 47)
이시한 (문리 52)
이영송 (치대 63)
이영일 (문리 53)
이영현 (간호 70)*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은경 (간호 80)
이익삼 (사대 58)*
이장길 (치대 63)
이정희 (   )
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종도 (공대 66)
이종묘 (간호 69)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재선 (농대 58)
이창무 (공대 54)
이청광 (상대 61)*
이현찬 (치대 75)
이홍표 (의대 58)*
이희충 (공대 68)
임건식 (음대 54)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석중 (공대 51)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윤희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장정용 (미대 64)*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범수 (농대 71)
전상옥 (사대 52)
정균희 (의대 66)*
정동구 (공대 57)
정동주 (가정 72)
정수만 (의대 66)
정연웅 (상대 63)*
정예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철륭 (의대 55)
정형민 (문리 71)
정형채 (상대 69)
정 황 (공대 64)
정희영 (치대 58)
조동준 (의대 57)
조만연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순자 (치대 57)
조정시 (공대 60)
조재길 (사대 61)
조태준 (문리 59)
조한원 (의대 57)
주정래 (상대 65)
지인수 (상대 69)
차민영 (의대 76)
최경자 (약대 63)
최영순 (간호 69)
최용완 (공대 57)
최종권 (문리 59)*
최희웅 (문리 59)*
하기환 (공대 66)
한동수 (의대 60)
한병용 (문리 71)
한종철 (치대 62)
현기웅 (문리 64)
홍석관 (사대 47)
홍선례 (음대 70)
홍성선 (약대 72)*
홍선일 (공대 71)
홍수웅 (의대 59)
황선주 (간호 69)
홍 진 (간호 56)
Park H. H.

● ● ● ● ● ● ●

북가주
SAN FRANCISCO

강일성 (상대 55)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명환 (문리 67)
김병호 (상대 57)
김영석 (상대 62)
김정복 (사대 55)
김정자 (사대 51)
김정희 (음대 56)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민병곤 (공대 65)
박경룡 (약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박종성 (법대 53)
박종영 (상대 52)
박찬호 (자연 81)
부영무 (치대 72)
손창순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신규영 (공대 64)
안병협 (공대 58)
안현수 (상대 67)*
안호삼 (문리 58)
양명교 (의대 55)
윤성희 (사대 58)
온기철 (의대 65)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이현숙 (사대 62)
이홍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임희례 (간호 73)*
전병련 (공대 54)
전혜경 (문리 67)
정규남 (공대 52)
정양자 (문리 59)
정유석 (의대 58)
정진수 (공대 56)
정춘임 (간호 67)
최경선 (농대 65)*
탁은숙 (문리 54)*
홍병익 (공대 68)
황동하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 ● ● ● ● ● ●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강에드 (사대 60)
계동휘 (치대 67)
고광호 (약대 56)
고순정 (간호 69)
공화삼 (농대 64)
권문웅 (미대 61)
권영국 (상대 60)
곽노섭 (문리 49)
곽상준 (약대 55)
곽선섭 (공대 61)
곽승용 (의대 65)
김경순 (상대 59)
김광현 (미대 57)
김명승 (상대 65)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숙 (보건 65)
김병술 (약대 52)
김봉련 (사대 54)
김석자 (음대 61)
김상만 (법대 52)
김성현 (약대 56)
김세환 (공대 65)*
김승호 (공대 71)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범 56)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완주 (의대 54)
김우영 (상대 60)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용연 (문리 63)*
김정빈 (약대 54)
김정희 (간호 69)
김정희 (약대 56)
김종률 (사대 51)
김종현 (법대 57)*
김창수 (약대 64)
김태일 (공대 68)
김한종 (의대 56)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자 (미대 66)
류재룡 (공대 58)
류재은 (미대 71)
문석면 (의대 52)
문소자 (음대 60)
민발식 (의대 60)
박건이 (공대 60)
박경숙 (간호 72)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반영철 (약대 54)
방준재 (의대 63)
변건웅 (공대 65)
변호련 (간호 63)
배명애 (간호 47)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서 량 (의대 63)*
서정웅 (약대 63)
석창호 (의대 66)
선종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송경희 (사대 59)
송영우 (사대 64)
송웅길 (대원 69)
신정윤 (공대 60)
신춘희 (간호 53)
안태홍 (상대 65)
연봉원 (문리 61)
오민근 (약대 52)
우대식 (문리 57)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유택상 (문리 58)
육순재 (의대 63)
윤봉균 (사대 54)
윤성수 (공대 71)
윤영섭 (의대 57)
윤종숙 (약대 66)*
윤 철 (   )
윤현남 (공대 64)*
염극용 (   )*
이강욱 (공대 70)
이강홍 (상대 60)*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국진 (사범 51)
이대영 (문리 64)
이명종 (공대 72)*
이상근 (경영 84)
이상무 (의대 56)
이영숙 (간호 56)
이운순 (의대 52)*
이유성 (사대 57)
이재원 (법대 60)
이정은 (의대 58)
이종석 (상대 57)
이종환 (법대 51)
이준행 (공대 48)
이충호 (의대 63)
이태안 (의대 61)
이해청 (약대 62)
이혜숙 (음대 68)
임공세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장화자 (간호 60)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정인식 (상대 58)
정인용 (의대 65)
정창동 (간호 45)
조경숙 (가정 71)
조경애 (   )
조남천 (사대 59)
조달훈 (사대 66)*
조명애 (간호 47)*
조아미 (음대 61)
조종수 (공대 64)
조종원 (62)
차국만 (상대 56)
차수만 (약대 71)
최구진 (약대 54)
최영태 (문리 67)
최종진 (의대 55)
최진영 (문리 55)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병용 (문리 71)
한영수 (의대 61)*
한태진 (의대 58)
함종금 (간호 66)
허병렬 (사대 42)
허선행 (의대 58)
허유선 (가정 8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황용규 (의대 68)
황 윤 (약대 81)

● ● ● ● ● ● ●

뉴잉글랜드
MA/RI/NH/ME/VT

고일석 (보건 69)
김만옥 (약대 56)
김문소 (수의 61)
김선혁 (약대 59)
김 영 (   )
김정환 (공대 52)
김종성 (상대 76)
김형범 (문리 57)*
박영철 (농대 64)
박종건 (의대 56)
배지선 (수의 94)
윤상래 (수의 62)
윤영자 (미대 60)
이강원 (공대 66)
이영인 (사대 74)
이은주 (음대 73)
이의인 (공대 68)
이재신 (공대 57)
장용복 (공대 58)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조성호 (공대 85)
주창준 (의대 50)
홍지복 (간호 70)

● ● ● ● ● ● ●

라스베가스
LV/NV

김영중 (치대 66)
김택수 (의대 57)
윤우영 (공대 63)

● ● ● ● ● ● ●

록키마운틴
MT/CO/WY/NM

박용호 (의대 59)*
송요준 (의대 64)
이경화 (공대 56)

● ● ● ● ● ● ●

미네소타
MINNESOTA

강패트 (   )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성욱진 (치대 87)
왕규현 (의대 56)
주한수 (수의 62)
황효숙 (사대 65)

● ● ● ● ● ● ●

샌디에고
SAN DIEGO

강영호 (의대 57)
남장우 (사대 56)
박경호 (사대 53)
박우선 (공대 57)
이문상 (공대 62)
이영신 (간호 77)
전원일 (의대 77)
정경화 (의대 70)
조두연 (수의 62)*
진성호 (공대 64)
황보민영 (공대 03)

● ● ● ● ● ● ●

시카고
IL/IN/WI/MI

강영국 (수의 67)
강창만 (의대 58)*
고병철 (법대 55)
구경회 (의대 59)
구행서 (공대 69)
김갑중 (의대 57)
김길중 (의대 59)
김로사 (의대   )
김성범 (상대 50)
김성일 (공대 68)
김승주 (간호 69)
김연화 (음대 68)
김용주 (공대 69)
김용호 (약대 69)*
김우신 (의대 60)
김일훈 (의대 51)
김정수 (문리 69)
김정화 (음대 56)
김재관 (의대 62)
김재석 (의대 61)
김현배 (의대 66)*
김현주 (문리 61)
김혜련 (음대 75)
노영일 (의대 62)
민영기 (공대 65)
박영준 (문리 67)*
박정일 (의대 61)
박준환 (의대 55)
박창욱 (공대 50)
배영섭 (의대 54)
백운기 (문리 56)
서상현 (의대 65)*
서영일 (의대 62)
소진문 (치대 58)
송재현 (의대 46)
신석균 (문리 54)
신택수 (의대 88)
안신훈 (농대 61)
안은식 (문리 55)
안창현 (의대 55)
오동환 (의대 75)
오봉완 (법대 53)
유동완 (수의 68)
유태종 (공대 50)
윤경순 (사대 61)
윤봉수 (간호 69)
이덕수 (문리 58)
이동균 (공대 75)
이민우 (의대 61)
이성길 (의대 65)*
이성길 (상대 58)*
이승자 (사대 60)
이용락 (공대 48)
이정일 (농대 57)
이종일 (의대 65)
임근식 (문리 56)
임이섭 (미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세곤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전성송 (수의 59)
정승규 (공대 60)
조문희 (공대 56)
조병권 (공대 64)
조의열 (의대 60)
조형원 (약대 50)*
천양곡 (의대 63)
최대한 (의대 53)
최희수 (문리 67)
하계현 (공대 64)
한의일 (공대 62)
황치룡 (문리 65)

● ● ● ● ● ● ●

아리조나
ARIZONA

김영중 (치대 66)
진명규 (공대 70)*
홍명기 (공대 61)

● ● ● ● ● ● ●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명인재 (자연 75)
성홍완 (수의 75)
송용재 (의대 63)

● ● ● ● ● ● ●

앨라스카
ALASKA

윤제중 (농대 54)

● ● ● ● ● ● ●

오레곤
OR/ID

김상순 (상대 68)
성성모 (사대 67)
전병택 (상대 69)
정태훈 (공대 68)

● ● ● ● ● ● ●

워싱턴 DC
DC/MD/VA/WV

강길종 (약대 69)
강연식 (사대 58)
고무환 (법대 57)
공순옥 (간호 66)
곽근영 (사대 51)
곽명수 (문리 65)
권오근 (상대 58)
권철수 (의대 68)*
계화자 (문리 61)*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김동훈 (법대 56)
김명자 (법대 52)
김병오 (의대 63)
김복순 (사대 55)
김안정 (문리 59)
김영기 (공대 73)
김용덕 (의대 53)
김진수 (의대 60)
김진은 (사대 55)
김 철 (의대 62)
김희주 (의대 62)
남욱현 (경영 84)
남춘일 (사대 69)
류재풍 (법대 60)
박용걸 (약대 56)
박유진 (미대 58)
박인영 (의대 69)
박일영 (문리 59)
박은희 (미대 68)*
박형순 (의대 54)
박홍우 (문리 61)
백 순 (법대 58)
서윤석 (의대 62)
서휘열 (의대 55)
석균범 (문리 61)
송병준 (약대 68)
심준보 (상대 55)
안선미 (농대 65)
안승건 (문리 55)
안인옥 (간호 71)
안창호 (약대 70)
안태민 (공대 62)*
양광수 (공대 73)
여준구 (의대 64)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우제형 (상대 54)
원종민 (약대 57)
유덕영 (공대 57)
유영준 (의대 68)*
유정식 (수의 60)*
이규양 (문리 62)
이문항 (공대 46)*
이수안 (공대 54)
이승원 (공대 62)
이윤주 (상대 62)
이재승 (의대 55)
이주희 (음대 89)
이준영 (치대 74)
이종두 (의대 57)
이진호 (공대 46)*
전희순 (간호 76)*
정기순 (간호 67)
정세근 (자연 82)
정원자 (농대 62)
정평희 (공대 71)
정희연 (의대 66)
조세진 (의대 65)
조화유 (문리 61)*
최경수 (문리 54)
최규식 (상대 64)
최동호 (문리 68)
최재규 (미대 63)*
한의생 (수의 60)
한정민 (농대 87)*
홍영석 (공대 58)
홍영옥 (음대 54)

● ● ● ● ● ● ●

워싱턴주
WASHINGTON

고광선 (공대 57)
김교선 (법대 54)
김석희 (의대 54)
김인배 (수의 59)
김재훈 (공대 72)
김주응 (의대 56)
류성렬 (공대 72)
박진수 (의대 58)*
박찬형 (의대 56)*
안승적 (농대 59)
윤석진 (문리 64)*
윤태근 (상대 69)
이길송 (상대 57)
이순모 (공대 56)
이원섭 (농대 77)
이회백 (의대 55)
하주홍 (경영 77)*

● ● ● ● ● ● ●

유타
UTAH/NV

김인기 (문리 58)
이 관 (공대 55)

● ● ● ● ● ● ●

조지아
GA/AL/MS

강창석 (의대 73)
김순옥 (의대 54)
김영서 (상대 54)
김용건 (문리 48)*
김종수 (수의 73)
김태형 (의대 57)
김학래 (공대 60)
김현학 (의대 57)
박천기 (법대 55)
손종수 (의대 50)
안승덕 (상대 51)*
오경호 (수의 60)
유성무 (상대 66)*
유우영 (의대 61)
임수암 (공대 62)
정량수 (의대 60)
정선휘 (공대 65)
최종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 ● ● ● ● ● ●

중부텍사스
MID-TEXAS

박준섭 (약대 63)
이영재 (상대 58)

● ● ● ● ● ● ●

북부텍사스
LA/DALLAS

김옥균 (공대 54)
유 황 (농대 56)
이석호 (공대 78)
전중희 (공대 56)*
탁혜숙 (음대 67)
하상태 (의대 59)
황명규 (공대 61)

● ● ● ● ● ● ●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 (수의 59)
강준철 (사대 59)
김규화 (상대 63)
김영남 (의대 61)
김영우 (공대 55)
김재술 (약대 48)
김정현 (공대 68)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김 훈 (의대 71)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서의원 (공대 66)
서재진 (공대 47)
서중민 (공대 64)
성정호 (약대 59)
손재옥 (가정 77)
송성균 (공대 50)
송영두 (의대 56)
신선자 (사대 60)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7)
안세현 (의대 62)
엄종렬 (미대 61)
유기병 (문리 64)
유영걸 (의대 70)
윤정나 (음대 57)
이규호 (공대 56)
이만택 (의대 52)
이병인 (수의 73)
이성득 (문리 67)*
이성숙 (가정 74)
전무식 (수의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곤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제갈은 (문리 59)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조화연 (음대 64)
주기목 (의대 68)
지흥민 (수의 61)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0)
최정웅 (공대 64)
최준희 (의대 58)
최종무 (상대 63)*
최현태 (문리 62)
한수웅 (의대 55)
한웅오 (보건 70)
한홍택 (공대 60)

● ● ● ● ● ● ●

플로리다
FLORIDA

김동한 (문리 53)
김중권 (의대 63)
박창익 (농대 64)
윤기향 (법대 65)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최준희 (의대 58)
한기빈 (공대 52)*
한성수 (의대 54)
홍순호 (수의 74)
황현상 (의대 55)*

● ● ● ● ● ● ●

커네티컷
CT

김기훈 (상대 52)*
유시영 (문리 68)
임경빈 (농대 78)
주공로 (공대 68)*
최수강 (의대   )
최창송 (의대 54)*
홍성휘 (공대 56)

● ● ● ● ● ● ●

캐롤라이나
SC/NC/KY

마동일 (의대 57)
성예경 (치과 54)
윤 숙 (문리 66)
이달호 (사대 45)
이범세 (의대 59)
이범세 (의대 63)
이종영 (음대 58)
한광수 (의대 57)
홍 훈 (문리 75)

● ● ● ● ● ● ●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박재현 (자연 81)
서갑식 (공대 70)

● ● ● ● ● ● ●

하와이
HAWAII

김승태 (의대 57)
유재호 (문리 57)*
윤제중 (농대 54)
이재형 (수의 61)
장광수 (사대 51)
차응만 (의대 58)
최경윤 (상대 51)

● ● ● ● ● ● ●

하트랜드
IA/MO/KS/NE/
AR/OK

김경숙 (가정 70)
김시근 (공대 72)*
도태영 (사회 93)
성낙준 (사대 68)
이상강 (의대 70)
임영신 (의대 54)
차봉희 (의대 51)
최은관 (상대 64)

● ● ● ● ● ● ●

휴스턴
HOUSTON

김기준 (공대 61)
김태훈 (공대 57)
김한섭 (의대 53)
박석규 (간호 56)
박유미 (약대 62)
박태우 (공대 64)*
유한창 (공대 69)
이규진 (약대 60)
이영옥 (가정 74)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성호 (문리 58)
최용천 (의대 53)*
탁순덕 (사대 5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75 (2018. 7 ~ 2019. 6)	☐ $240 (2018. 7 ~ 2019. 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500	☐ $150 (2018. 7 ~ 2020. 6)	☐ $480 (2018. 7 ~ 2020. 6)	☐ Charity Fund (나눔) $_____
☐ $1,000	☐ $3,000 (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 ____		general@snuaa.org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________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 (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종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십니다.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십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USA투어 213-388-4000
문의: D.C. 상품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제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9개국 선교지 12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디자인)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흥조 (치) · 이영목 (공) · 이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옥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헌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헌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제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헌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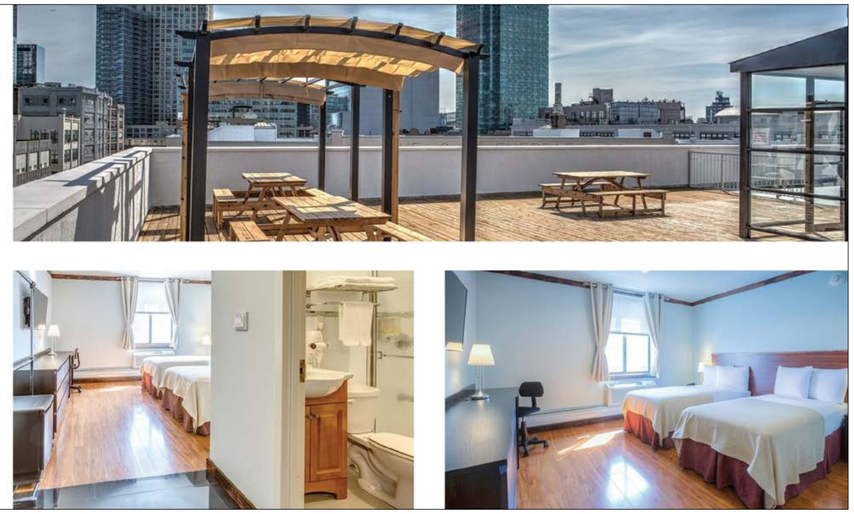
LIC HOTEL

At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718-406-9788

reservations@lichotelny.com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김승호 (공대 71)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 SINCE 2000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WATER INFRASTRUCTURE
PUBLIC WORKS
ENGINEERING FIRM

2019
Happy New Year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LEE & RO, Inc.

Since 1979, LEE & RO Inc. provides water infrastructure engineering services for public water agencies, municipalities and sanitation agencies throughout the State of California

WWW.LEE-RO.COM

노명호 (공대61)

M. Steve Ro, P.E.
President / CEO